

무덤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구조의 변천

김권구(계명대학교 한국문화정보학과)

무덤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구조의 변천

-수장의 출현과 불평등 제도화 양상의 불안정성-

김권구(계명대학교 한국문화정보학과)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무덤자료로 본 청동기시대 사회의 특성 |
| II. 주요 연구 흐름과 문제제기 | V. 청동기시대 사회의 구조의 변천과 위계의 불안정성 |
| III. 분석방법과 무덤의 분류 | VI. 맺는말 |

I. 머리말

묘제와 장제 속에는 과거 사회의 내세관을 포함한 각종 믿음체계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보낸 후 산 자들이 희망하는 권력관계를 재생산 하려는 사회적 전략과 의미부여가 반영되고 피장자의 정체성, 해당 사회의 구조와 사회분화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것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중요한 고고학의 연구주제였다

청동기시대의 무덤으로는 지석묘, 석관묘, 토광묘, 옹관묘 등이 있으며 이들을 포함하여 주구석관묘, 석개토광묘, 이단토광하부구조를 가진 지석묘, 구획식 묘역지석묘 등 다양한 변형의 무덤이 확인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청동기시대 무덤을 중심으로 청동기시대의 사회구조의 변천과 위계화 진행양상을 검토해보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청동기시대 취락사이의 위계양상이 규모상으로 적어도 소형취락-중형취락-대형취락으로 또는 기능상의 특성에 따라 상위취락-중위취락-일반취락으로 구분되고 있는데(송만영2007:44, 이형원2009:226-242, 河眞鎬2008:120-121) 이러한 취락에서의 전개양상을 염두에 두고 지석묘 등 무덤에서의 양상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동기시대 사회의 특성을 살펴볼 때에는 평등과 불평등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실제 평등사회라고 간주하는 구석기시대 수렵채집집단에도 능력과 성별 그리고 나이의 정도에 따라 귀속적이지는 않더라도 불평등적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박양진 2006:12).

II. 주요 연구 흐름과 문제제기

1. 주요 연구흐름

청동기시대 사회가 어느 정도 위계화 되었는가의 문제는 사회발전단계의 문제와 관련되어 계속 논란거리가 되었다. 또 계서(rank), 위계(hierarchy), 계층(stratification), 계급(class)의 개념¹⁾에 대한 약간의 혼란도 있었으나 현재에는 청동기시대사회의 성격규정²⁾과 관련하여 평등사회, 불평등사회, 평등사회에서 불평등사회로 다가가는 중간적 단계로 크게 세 가지 입장이 각기 존재하고 있다. 또 그것이 중심과 주변의 문제이건 아니건 지역별로 사회분화단계가 다양하였음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었고 사회분화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와 그 기준이 지역별로 시기별로 다양하였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그 구체적인 논의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지석묘사회가 혈연에 기반을 둔 계급이 발생한 족장사회이며 지석묘는 족장사회 상류층의 공동묘지이며 조상숭배를 위한 기념물(최몽룡1999:15, 최몽룡 외 2005:244, Mong-Lyong Choi 1984:138-155), 지석묘사회가 평등사회에서 계급사회로 발전되어가는 과정으로 유력자의 출현이 이루어지던 사회(李榮文2001:448)이지만 각 집단 간의 상호협동에 의하여 지석묘가 축조되는 공동체사회의 성격 보유(李榮文1993:286), 지배자집단과 일반주민의 묘역이 분리되어 차별화(김길식1994:184), 청동기시대 후기에는 유력개인묘가 등장하고 지역지배자도 등장하여 평등사회에서 불평등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김승옥2007:104-109, 116), 청동기시대 후기에 여수반도 등 특정지역에서는 수장사회에서 국(國)으로 진전(武末純一2002), 자발적 협력체제에 의한 지석묘가 축조되는 평등사회(노혁진1996:119-183), 무문토기시대 전기 전반대에는 평등사회였다가 여천 적량동 혹은 부여 송국리의 사례에서와 같이 유력집단 또는 유력 개인의 출현(최종규1995:108-110), 청동기시대 사회를 산포형(개인군집형)-대봉동형(유력가족형I)-덕천리형(유력가족형II)으로 나누고 그 순서로 변화했다고 추정하면서 청동기가 부상된 묘의 피장자만이 상위계층은 아님(이상길1996:91-114), 남해안지역 거대 묘역축조집단은 경제력과 인력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력개인과의 관련성 상정(한송이2010:52-54), 대부분의 분묘가 열상으로 정연하게 배치되며 원형과 방형의 묘역이 따로 존재하며 각기 소형의 군집을 이루는 여의곡유형, 열이 다소 흐트러지고 원형과 방형묘역이 혼재하는 이금동-진동유형, 그리고 열(列)의 개념이 파괴되고 단독으로 묘역이 존재하는 덕천리유형의 3개의 유형으로 구

1) 그동안 계서, 위계, 계층, 계급의 개념에 대하여 여러 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다(이형원2009:256-258, 배진성2007a:200-202 그리고 2007b:145-147, 김승옥2007:61-139).

2) 이청규(2007:11-23, 2010:125-150), 김경택(2004:47-85) 등 청동기시대 사회성격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획묘를 나누고 그러한 양상은 권력자의 등장을 암시(이상길2006, 2007:190-1920), 청동기시대 후기 창원 진동리와 창원 덕천리와 같은 초대형분묘를 수장묘로 정의하고 동검출토묘를 최상위에 둔 계층사회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또한 거대한 묘역 내지는 구획시설로 대표되는 금강상류역의 여의곡은 동검묘는 없지만 그 일대의 거점집단이며 송국리단계에는 각 지역의 상위집단이 상호대등한 위치에서 권역을 유지(裴眞晟2007a223-:226, 2007b), 송국리와 관창리의 분묘공간에서 수장의 존재는 인정되지만 그 수장가계의 권력이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청동기시대 후기사회를 단순계층사회로 간주(이형원2009:256-257), 여수반도 적량동 지식묘집단의 경우처럼 족장사회로의 진입이 빨랐던 곳과 늦었던 곳이 있었으나 지식묘사회는 단순족장사회에 해당(이동희2005:94, 298), 지식묘사회에서 비파형동검 등 특수유물의 보유집단과 보유하지 않은 집단 사이의 계층분화가 시작(平郡達哉2004:87)한다는 등의 여러 주장은 청동기시대의 사회구조와 성격에 대한 시각의 다양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평등사회, 계서사회 복합족장사회에 관한 논의(김승옥2007:61-92-116, 박양진2006:14, 이형원2009:257)를 참고하며 평등사회와 계층사회의 특성을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자료의 양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표1〉 평등사회와 계층사회의 주요특성³⁾

	평등사회	계서사회(ranked society) 혹은 단순 수장사회(simple chiefdom society)	복합수장사회 (complex chiefdom society)
사회적 특성	수평적 차별화, 사회적 분화(남녀노소)	심화된 수평적 차별화	수직적 계층화, 불평등의 제도화
사회적 지위	임시지도자, 획득적 지위	한시적 수장(지배자), 획득적 지위	세습수장(지배자), 귀속적 지위
경제적 특성	호혜적 교환, 비전업적 수공업전문화, 경제적 분화(성별 및 기능적 분업)	재분배? 반(半)전업적 수공업전문화 또는 전업적 수공업전문화, 부분적인 경제적 전문화 혹은 경제적 전문화	재분배, 전업적 수공업전문화, 경제적 전문화

3) Peebles와 Kus(1977:421-445)는 취프덤 또는 계서사회의 표식으로서 재분배는 제외하면서 대신 묘제와 장제상의 차별화, 의례에 의하여 제한되는 대외관계망, 취락관계, 생업상의 자율성, 그리고 비전업적 수공업전문화를 그러한 단계에 속한 사회의 분별가능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한 주장과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사회의 양상 등을 고려하여 수정 제시한 것이 〈표1〉이다.

2. 문제제기

과거 청동기시대 묘제의 연구는 주로 지식묘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대체로 피장자의 생존시 지위가 높고 역할이 크고 많을수록 무덤의 축조에 많은 사회적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가설⁴⁾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한 가설은 반드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옳은 것만도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 관련 유구와 유물의 출토양상은 기대했던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확인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천 이금동 A-1호 지식묘나 창원 덕천리 1호 지식묘의 경우에서 보이듯 지식묘상석이나 하부구조의 규모가 크거나 입지가 우월하거나 중심적인 곳에서 반드시 비파형동검 등 우월한 내용과 양의 부장품이 출토되지 않는 점이 이러한 가설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李相吉1996, 崔鍾圭2004, 裴眞晟2007b:170-171). 다단토광과 내부적석 그리고 이중 다중개석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복잡한 지식묘에서 빈약한 부장품이 출토되는 양상은 동 유형의 지식묘 축조집단이 외부적인 파워의 과시에 만족한 것이고 작은 규모의 지식묘에 묻혔는데 비파형동검 등의 부장품을 가진 것은 취락구성원의 시선 때문에 내부적인 파워만을 과시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을 것이라는 지적(추연식2001:185-186)도 다양한 시각에서 기존 연구가설을 보완해야 함을 암시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청동기시대 사회에 관한 과거연구의 성과와 기준을 일률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으며 청동기시대는 평등사회에서 불평등사회로 진행되던 시대로서 지역별, 시대별로 다양한 변수(속도, 규모, 생업, 이념적 토대와 전략, 인구규모, 경쟁, 교역, 기술 등)의 영향을 차별적으로 받아가며 사회위계화가 이루어졌다고 보면서 그에 대한 이해는 그 장기 지속적 전통과 지역성 속에서 시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새롭게 사회관계를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의 측면에서 왜 특정 묘제가 필요하게 되었고 확산되었는가와 그러한 묘제와 묘역이 축조되는 메커니즘과 불평등의 관리방식에도 관심을 두어야 하며 불평등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불평등이 언제 출현하였는가보다는 불평등이 어떻게 관리되고 제도화⁵⁾되는가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4) 매장 의례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과 관련 행위의 복잡도가 피장자의 사회적 지위와 비례한다는 시각은 사실 신고고학자들의 연구에서 주로 채택되었다(고일홍2010:9).

5) 여기에서 제도화(institutionalized)란 이들 차별화가 상속되면서 사회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제도화의 경우 그 제도를 지속시키며 뒷받침하는 경제적 토대와 재정 그리고 이념적 토대 등도 주목하여야 한다. 청동기시대의 경우 농경의 집약화와 확산 그리고 잉여의 발생을 토대로 한 지식묘축조의 구획성과 과시양상을 통하여 계서관계를 확대재생산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

III. 분석방법과 무덤의 분류

1. 분석방법과 편년의 틀

이 글에서는 첫째, 청동기시대 무덤의 피장자의 성격, 둘째, 청동기시대 무덤의 지역별 분포 양상과 규모 그리고 영역권, 무덤축조관리의 장기지속성 여부, 셋째, 청동기시대 무덤부장유물 상의 차별성, 무덤사이의 위계, 무덤군 내에서의 차별성 등에 대한 비교검토를 하고자 한다.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에 대해서는 조기의 설정문제와 지역성 등 다양한 시각이 있으나 필자는 일단 초기(미사리유형)⁶⁾, 전기(혼암리유형, 가락동유형, 역삼동유형), 후기(송국리유형, 검단리유형 등)의 시기로 나누었다. 그 구체적 내용은 <표2>과 같다.

<표2> 청동기시대 시기구분과 관련 유물

구분	관련유물	관련 유형	비고
초기	돌대문토기, 홍도, 비정형석도	미사리유형	
전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 공열문토기, 공열토기, 이단병식석검, 이단경식석촉, 무경식석촉, 홍도, 채도	가락동유형, 혼암리유형, 역삼동유형	공열토기는 지역에 따라 후기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음.
후기	송국리식토기, 검단리식토기, 일단병식석촉, 삼각형석도, 유구석부, 채도, 홍도	송국리유형, 검단리유형 등	이단경식석촉과 무경식석촉 등은 반드시 전기에 속한다고만 할 수 없고 일단은 전기로 분류하였음.

2. 자료 편년 상의 문제

이 논문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특별한 발굴 자료가 없을 경우 해당 무덤⁷⁾을 편 의상 청동기시대 후기에 축조된 것으로 가정하고 자료를 해석하였다. 지석묘군의 상호관계 해석에 있어서 청동기시대 전기와 후기가 각각 상당히 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동시기(同時期)에 함께 한 것으로 가정하고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미리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석묘군의 묘역배치양상 등 제반 특성과 계층화 그리고 지역지배자의 출현과정을 기준으로 지석묘사회를 4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김승옥2007:105) 그 대체적인 흐름에는 동의하나

6) 초기설정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필자는 신석기시대의 문화전통의 잔재와 청동기시대의 문화요소가 처음 나타나는 시기를 초기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초기설정론자(이건무2007:169-210, 안재호2010:5-56)의 견해를 따른다.

7) 지석묘의 상석이 유실되는 경우 석관묘로 분류될 수도 있어서 지석묘와 석관묘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다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지석묘군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그와 같이 4단계로 설정하고 일반적으로 적용하는데 주저되는 바가 있음으로⁸⁾ 이 논문에서는 세분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3. 청동기시대무덤의 시기별 구분

지석묘, 석개토광묘, 주구석관묘, 주구토광묘 등 청동기시대 전기의 무덤들은 대체로 2-3기 내외로 산발적이거나 소군집 양상으로 배치되고 종종 단독묘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3>이다.

<표3> 청동기시대 전기의 주요 무덤

	주요사례	주요출토유물	특성	참고사항
청 동 기 시 대 전 기	합천 저포리E 8호지석묘	이단병식석검, 무경식석촉, 유경식석촉, 홍도 등	단독배치? 총적대지입지, 장방형구획묘역	釜山大學校博物館 (1987:270-278)
	진주 옥방8지구3호 석관묘와 5호 석관묘	이단병식석검, 무경식석촉, 유경식석촉, 채문토기	소군집배치, 총적대지, 장방형주구, 판석 <그림3c>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외 (2003:211-224)
	진주 이곡동 29호 토광묘	이단경식석촉, 무경식삼각만입석촉 등	단독묘? <그림4b>	배덕환 외 (2007:177-179)
	산청 하촌리 주구토광묘 (1호)	돌류문토기, 구순각목토기, 홍도, 무문토기편 등	주구토광묘. 동일 묘역의 주구석관묘(2호)는 청동기시대 후기추정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1:130-143, 165)
	마산 진북 망곡리 주구묘	이단병식석검, 옥	입지와 규모 우월, 부장유물의 특별함. <그림3a,> <그림3b>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외 (2009b:62-65)
	대구 삼덕2가 지석묘1호	삼각 만입석촉	3기의 지석묘 및 부석유구 인접	삼한매장문화재연구원(2009)
	포항 인비리16호 지석묘	암각화(이단병식석검 및 무경식석촉)	소군집, 구릉입지, 상석유존	국립경주박물관 91985:103-157)
	진안 안자동 1호지석묘	이단병식석검, 삼각만입석촉 등	단독묘역, 능선말단부, 방형구획 <그림2a>	김승옥 외 (2001a:215-230)

8) 지역별로 지석묘 등 무덤을 통한 사회위계화의 표현방식이 달랐을 가능성과 지역별 사회진화양상이 단선진화가 아니라 다선진화였을 가능성 등도 있어서 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실제 진주 이곡리유적의 분묘양상의 경우 단일시기의 양상이 아닌 김승옥의 I·II기 양상의 혼재(단독묘역에 석검부장, 저분구형의 성토형 묘역, 묘역 전면에 의례적 목적의 무문토기 산포 등)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李海錫 2007:274).

	주요사례	주요출토유물	특성	참고사항
청동기시대 전기	진안 안자동 9호지석묘	이단병식석검, 삼각만입석촉, 흉도	단독묘역, 총적대지, 방형구획 <그림2b>	申大坤 외 (2001:53-62)
	진안 풍암 16호지석묘	삼각만입석촉, 이단경식석촉, 유경식석촉, 석찰, 무문토기편, 흉도편, 석부	단독묘	김승옥 외 (2001c:63-69, 89-90)
	진안 수좌동 1호지석묘	이단병식석검, 무경식석촉	단독입지, 구릉말단부, 구획묘역, 할석	신대곤 외 (2001:143-148)
	대전 비례동1호지석묘	비파형동검, 삼각만입석촉, 흉도	소군집, 구릉사면, 개석지석묘, 할석	충남대학교박물관 (2007:57-59)
	대전 비례동 2호지석묘	흉도?	소군집, 구릉사면, 개석지석묘, 할석	충남대학교박물관 (2007:57-59)
	대전 비례동 3호지석묘	흉도, 관옥(내부교란?)	단독입지, 구릉정상부, 개석지석묘, 할석	충남대학교박물관 (2007:57-59)
	대전 신대동 석관묘	유혈구이단병식석검, 삼각만입석촉, 이단경식석촉, 흉도	단독, 구릉사면, 할석	충남대학교박물관 (2007:61)
	서천 오석리 주구석관묘	비파형동검, 이단경식석촉, 관옥	단독입지, 구릉, 주구, 할석	朴亨順(2008:13-44)
	제천 황석리2호지석묘	이단병식석검, 무경식석촉	단독? 총적대지, 개석식?, 방형구획묘?	김재원 외(1967)-황석리도판 20
	청원 황탄리유적	이단병식석검, 삼각만입석촉		충남대학교박물관 (2007:62)
	춘천 천전리 A-나지구 주구석관묘군	무경식석촉, 유경식석촉	군집, 총적대지, 주구석관묘	강원문화재연구소 외(2008:220-256)
사천 이금동 51호 석개토광묘 등	삼각만입석촉, 이단경식석촉, 유경식석검, 흉도, 구순각목문토기 등	석개토광묘 등<그림4a>	경남고고학연구소 (2003:291-294), 金賢(2003:351)	

청동기시대 후기에는 지석묘 하부구조의 대형화, 구획식 묘역지석묘의 군집양상 또는 대형 지석묘의 단독분포양상 등과 더불어 지석묘군의 대형군집화와 규모상의 위계양상이 보인다. 또 부여 송국리유적의 경우와 같이 수장층과 일반구성원의 묘역이 차별화되는 양상도 보이며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시작된 묘역이 청동기시대 후기까지 이어지는 장기지속성의 한 단면도 보인다. 청동기시대 후기의 주요 무덤에 관해 정리한 것은 <표4>와 같다.

〈표4〉 청동기시대 후기의 주요무덤

지역	주요사례	주요출토유물	특성	참고사항
청동기시대 후기 남해안지역(호남)	보성 송곡리 지석묘군	홍도, 마제석검, 석착, 석부, 점토대토기(초기 철기시대)	20기 이상의 지석묘 등이 30m x 20m의 면적에 불규칙적으로 밀집분포. 상석 차이 존재(45톤-5톤). 이단토광. 등고선방향으로 열상배치추정. 보성 동촌리유적과 대비.	임영진 외(2003:68)
	보성 동촌리 지석묘군	1호지석묘(관옥40점, 유경식석촉)	2기의 지석묘 넓은 해안평야를 조망. 낮은 구릉에 단독입지. 이단대형토광의 하부구조<그림9c>	국립광주박물관(2001:8-18)
	여수 화장동 지석묘군	24호석곽(벽옥계 관옥), 26호 구획석렬지석묘(비파형동검 1점)	27기의 지석묘 등고선 방향으로 2열배치. 구획석렬 지석묘.	최인선 외(2001:140-156)
	여수 오림동 지석묘군	5호석곽(비파형동검3점과 관옥2점), 8호지석묘(비파형동검편)	20기의 지석묘 좁은 면적(35m x 15m)에 밀집분포. 구획식 묘역.	이영문 외(1992:37-41), 이동희 외(2006:31-32)
	여수 봉계동 지석묘군	월양지석묘10호(비파형동검 봉부편 1점, 관옥 15점, 소옥1점)	봉계동에는 계곡이나 세장한 평지를 따라 대곡지구 23기(4기/8기/7기/4기)와 월양지구 32기(2기/10기/1기/1기/3기/4기/2기/5기/1기/3기) 동서방향으로 분포.	이영문(1990:57)
	여수 평여동 산본 지석묘군	비파형동검 1점, 옥류 35점, 유구석부, 석촉	29기 지석묘조사. 3개군 군집. 각 군집 지역에 큰 상석의 남방식지석묘1기씩 잔존. 장방형 또는 원형구획묘역. '가'군은 장방형구획묘역을 한 지석묘 중심으로 석관들이 주위에 배치된 양상.	이동희 외(2006:32-33)
	여수 적량동 상적 지석묘군	비파형동검 7점출토. 2호석곽(비파형동검, 비파형동모, 관옥, 유구석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편)	25기 지석묘하부구조 확인. 7개 소군집으로 군집분포. 각 소군집에서 1점씩 모두 7점의 비파형동검 출토<그림10>.	이영문 외(1993:126-141), 이동희 외(2006:33)
여수 적량동 / 월내동 GS칼텍스공장 확장예정부지 상적지석묘군	비파형동검, 일단병식석검, 유경식석촉, 유구석부 등	상촌지석묘군 4개 대군집 양상. 상촌지석묘군II(34기 매장주체부 2-3개 소군집 양상. 원형과 방형의 구획식묘역지석묘, 지석묘 서로 연결분포). 상촌지석묘군III(147기 지석묘하부구조 6개 소군집 양상). 상촌지석묘 III의 116호지석묘는 F군집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상석무게는 11.9톤으로 상석과 묘역의 규모는 군집 내에서 가장 크며 비파형동검도 출토됨.	동북아지석묘 연구소(2010)	

지역	주요사례	주요출토유물	특성	참고사항	
청동기시대 후기	남해안지역(호남)	여수 월내동 지석묘군	유병식석검9점, 유경식석검2점, 유구석부6점, 구순각목공열토기편, 흉도	35기 지석묘가 대체로 7개 군집양상.	국립광주박물관 외 (1992:176-177)
		여수 화동리 안동 지석묘군		63기 지석묘매장주체부 조사. 원형구획묘역지석묘	이동희 외 (2006:145-152)
		여수 미평동 죽림지석묘군	유병식석검, 무문토기편	12기의 상석확인. 3.3톤-22톤의 상석무게차이존재. 대부분의 상석무게 4-9톤.	최인선 외 (1998:37)
	사천 이금동 지석묘군	비파형동검, 관옥 등	상석, 부석, 구획석열 존재. 총 묘역길이 약 800m, 약 60기 지석묘 및 석관묘 등 확인. 8-9기의 무덤들이 군집분포. 묘역을 공유. 상석, 부석, 구획묘역 지석묘군이 연결분포양상. 비파형동검과 관옥은 이금동지석묘군 D군에 다수 밀집출토. 관옥의 출토빈도와 수량은 B군에 집중. 비파형동검이 출토된 C-10호묘와 D-4호묘 모두 입지와 묘역 그리고 규모에서 다른 분묘와 차별화 되지 않음. <그림7d>	경남고고학연구소(2003)	
남해안지역(경남)	김해 울하리 지석묘군	흉도, 유경식석촉, 일단병식석검 -B-9호(세형동검, 검파두식)	대규모 구획묘역, 다단토광을 통한 규모 극대화. 지석묘의 경우 석관묘에 비해 규모 크고 독립적 입지. 100여기의 분묘가 6-7개의 소군집으로 분포양상<그림9a>, <그림9b>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9a:1), 윤호필 외 (2009:272-292)	
	창원(구마산) 진동리 지석묘군	비파형동검, 마제석검, 반월형석도, 흉도, 관옥 등	지석묘11기, 남방식지석묘 1기, 석관묘 45기 등 확인. 원형, 방형, 세장방형의 구획식 묘역지석묘 혼재. 구획식 묘역지석묘 서로 연결하며 개별적인 묘역군 형성(지석묘A~K군).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9b:15-18), 하승철 (2008:17-39), 윤호필 (2004:499)	
	창원 덕천리 지석묘	흉도, 마제석검, 석촉, 석착, 비파형동검 1점 등 * 1호(유경식마제석촉 22점, 관옥6점, 목제품2점), 2호(관옥165점, 흉도1점, 칠편), 5호(흉도)	독립적으로 구획된 대규모 묘역. 지석묘의 거대한 규모. 지석묘3기, 석관묘 및 석개토광묘5기 확인. 90m x 230m 범위에 남북방향으로 일렬분포. 다단토광의 하부구조. <그림8>	이상길 (2004:147)	

	주요사례	주요출토유물	특성	참고사항	
청동기시대 후기	남강유역	산청 매촌리 지석묘군	청동촉, 마제석검, 마제석촉, 식옥	장방형·원형 구획식 묘역지석묘 9기와 석관묘 39기. 석관묘는 하안단구 등고선과 나란하게 열상분포.	우리문화재연구원(2009)
		진주 이곡리 지석묘군	마제석검, 유경식석촉, 홍도, 옥.	지석묘, 석관묘 또는 석곽묘, 토광묘, 적석유구 등 모두 41기의 무덤확인. 평면 방형, 장방형 또는 원형의 구획식 묘역지석묘 다수 확인. 약 3개소군집 분포.	배덕환 외 (2007:24-253), 李海鈿 (2007:254-275)
	대구 대천동 지석묘군	일단병식마제석검, 석촉, 홍도 출토. 출토유물빈약. 그러나 B군11호묘(마제석검 1점, 유경식마제석촉15점), B군12호묘(홍도, 마제석검, 유경식마제석촉, 무문토기, 관옥33점, 환옥14점, 곡옥2점)	다양한 석관묘(석촉형, 혼촉형, 상형, 토광형) 등 68기 확인. 크게 2군집으로 분포. 전반적인 유구의 수에 비하면 출토유물의 양이 빈약한 편.<그림5c>	하진호 외 (2009a, 2009b)	
	대구 상인동 지석묘군	마제석검, 석촉, 홍도, 곡옥 등	부석이 깔린 구획식묘역을 가진 4기의 석관과 1기의 원형유구 등이 연결되어 길이 27m 폭 8m의 집단묘역확인. 마제석검, 석촉, 홍도, 곡옥 출토. 다른 지석묘에 비하여 부장품이 출토된 편임. 인근의 12기의 상인동 98-1지석묘12기와는 차별화했을 가능성.<그림7c>	경북대학교박물관 (1992:134), 국립대구박물관(2001:33), 大東文化財硏究院 (2008:108-109)	
	대구 상동지석묘군	마제석검, 유경식석촉 등	41기의 지석묘 등의 하부구조가 좁은 면적(15m x 15m)에 밀집분포. 석곽형 하부구조가 33기, 석관형 하부구조가 5기로서 석곽형이 다수. 처음에는 좁고 긴 자연제방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다가 후에 더 밀집하여 지석묘가 축조된 것으로 추정.<그림5b>	신종환 (2000:114-116)	
	대구 신서혁 신도시 개발 사업 B-I구역 지석묘군	석촉, 홍도	48기의 하부구조(지석묘 4기, 석곽묘 28기, 석관묘 16기)가 좁은 면적(약30m x 약20m)에 밀집분포. 지석묘 등 3-4개의 소군집 분포양상.<그림5a>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09)	
	달성 평촌리 지석묘군	일단병식마제석검, 유경식석촉, 홍도 등	충적대지에 석관묘28기가 열상밀집분포. 인근의 평촌리지석묘군 I, II, III과 고봉리 지석묘군과 만남. 군집묘, 무덤규모와 입지 등으로 묘역 내 차별화 말하기 어려움.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0: 80-140, 350)	

	주요사례	주요출토유물	특성	참고사항
청 동 기 시 대	낙동강중상류지역 칠곡 복성리 지석묘군	12호석관(유경식석촉 11점, 홍도1점, 관옥40점)	지석묘 하부구조 17기. 규모가 큰 묘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배치하고 그 주변에 각각 상대적으로 작은 묘 조성. 1호 지석묘와 12호 석관묘의 경우는 장방형의 포석(鋪石)시설을 갖춘.	영남문화재연구원외 (2001), 권태룡(2001:65, 76-77)
	합천 저포리 E 지석묘군		지석묘7기와 토광묘 1기 확인. 지석묘상석은 동서2열로 170여평의 좁은 면적에 밀집배치. 대체로 장방형의 구획식 묘역 지석묘. 묘역 내부에 부석(敷石)이 깔림.	부산대학교박물관 (1987:12-13, 249-278)
	김천 문당동 1호 목관묘	비파형동검, 흑도장경호, 원형점토대토기, 유경식석촉, 석검, 천하석제소옥	구릉 사면에의 단독입지와 부장품의 우월성 등을 고려 지석묘집단과는 또 다른 묘제를 사용하는 집단의 유력자무덤일 가능성.	박정화 외 (2008:39-61)
	안동 지례리 지석묘군	유구 외 출토유물(일단병식마제석검, 유경식석촉, 검파두식, 조합우각형파수부장경호, 원형점토대토기 등)	A지구지석묘군 22기와 B지구지석묘군 8기 도합30기. 대체로 소형지석묘. 지상식의 위석식 지석묘. 열상분포양상 추정. A지구지석묘군 22기는 약 90평의 좁은 면적에 밀집 분포.<그림6c>	계명대학교박물관 (1989:14-161).
후기	보령 평라리 지석묘군	홍도편, 무문토기편, 삼각형석도, 마제석검, 유리옥 등	지석묘와 석관묘 등 21기의 무덤 하천방향과 나란하게 2열로 배치. 3-4개의 소군집양상. 구획식 묘역지석묘<그림7b>	이용조 외 (1996)
부여지역	부여 송국리 석관묘군, 옹관묘군	1호석관묘(비파형동검, 동착, 관옥, 곡옥, 일단병식석검, 유경식마제석촉 등). 옹관묘2기(관옥 등 다수의 옥기 출토)	부여 송국리52지구 능선 정상부대지에 입지. 석관묘4기, 석개토광묘2기, 옹관묘4기 확인. 석관묘와 토광묘 모두 이단토광. 수장층묘역으로 추정. 4기의 옹관묘피장자 유아로 추정. 옹관묘2기에서 다수의 관옥 등 출토추정. 계서의 세습사례암시.<사진1a>, <사진1b>, <사진1c>	국립중앙박물관 (1979:106-119), 이진무 (1979:115-119), 武末純 (2002:34-35)
	부여 남산리 분묘군	출토유물 중 청동제품 없음.	석관묘2기, 토광묘22기, 옹관묘3기 등 조사. 송국리 취락에서 2.5km 이격. 송국리취락의 일반구성원 무덤으로 추정	김길식 (1994:177-193)武末純 (2002:34-35)

	주요사례	주요출토유물	특성	참고사항
청동기시대 후기	진안 안자동 2호지석묘	홍도편, 구순각목토기편, 유구석부(2호지석묘 인근 적석유구출토)	구획식묘역지석묘	김승옥 외 2001a:221-237)
	진안 모곡지석묘군	일단병식마제석검, 유경식석촉, 무문토기편	지석묘6기, 석관묘 2기, 원형적석유구2기. 묘역부위에 적석이 깔려있는 양상이며 개별묘역연접 및 집단묘역형성.	김승옥 외 2001b:135-174)
	진안 여의곡지석묘군	일단병식마제석검, 이단병식마제석검, 유경식석촉, 유구석부, 무문토기(삼각만입석촉 발견되지 않음)	63기의 분묘조사. 대부분이 개석식지석묘, 방형, 원형, 타원형의 구획식묘역형성. 3-5기가 일렬로 연접축조. 지석묘가 석관묘, 석개토광묘와 옹관묘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파악.(사진7a)	김승옥 외 2001d:538-543)
	진안 풍암지석묘군	일단병식마제석검, 유경식석촉 등	15기지석묘가 후기. 방형의 구획식묘역. 일렬로 연접하거나 나열배치. 집단묘 성격. 적석묘역. 중앙부위 높아 분구양상.	김승옥 외 (2001c:79)

IV. 무덤자료로 본 청동기시대 사회의 특성

1. 청동기시대 무덤의 피장자에 관한 논의

과거 사람들의 사회적 전략과 선택을 고려할 때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무덤의 규모가 크거나 입지가 우월하거나 부장품의 종류와 수량이 많아 무덤축조와 관련된 에너지를 많이 투여한 무덤들은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진 않았어도 일단 다른 무덤과 비교하여 유력자무덤일 확률은 높다고 생각한다.

청동기시대 전기의 무덤으로 마산 진북 망곡리 석관묘, 서천 오석리 주구석관묘 등의 주구석관묘가 있는데 이들 무덤의 피장자들은 묘역의 차별화 측면과 주구석관묘의 상대적 희소성과 단독입지 등을 토대로 볼 때 집단의 유력자일 가능성이 있다.

그 동안 지석묘에 묻힌 사람의 범주로 지배자, 지배자와 그 가족, 혈연집단의 공동무덤, 전사자의 무덤 등이 제기되었는데 4가지 범주 모두를 경우에 따라 인정하는 견해(李樂文 2001:446-448)가 있는데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구 대천동 지석묘군, 대구 상동지석묘군, 안동 지례동지석묘군 등의 무덤과 같이 묘역을 형성하지만 상대적으로 무덤군 자체 내에서 규모상의 차별성이 적고 부장유물도 빈약한 경우 해당 무덤군이 일반구성원의 공동묘역일 가능성이 크다. 사천 이금동, 산청 매촌리, 김해 울하리지석묘군은 취락의 일반구성원

과 수장이 동일묘역에 공간을 차별화하며 함께 묻힌 것이며 대형 구획식 묘역지석묘는 수장 등 유력자의 무덤인 반면 그 인근에 딸린 중소형의 지석묘들은 수장과 혈연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친연성이 있는 가족이나 일반구성원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청동기시대 후기에 오면 일반 구성원의 지석묘에 대한 차별화 전략으로 대규모 상석(언양 서부리지석묘), 대규모 지하구조(김해 율하리지석묘군)〈그림9a〉〈그림9b〉, 구획식 묘역(사천 이금동지석묘군, 산청 매촌리 지석묘군, 창원 덕천리지석묘군)〈그림7d〉, 〈그림8〉, 우월적 입지(창녕 유리지석묘, 창원 덕천리지석묘, 김천 문당동1호묘), 우월적 부장품(여수 적량동 상적 지석묘군, 김천 문당동 1호 목관묘)〈그림10〉 등의 다양한 특성을 갖는 지석묘들이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별로 사회적 위계를 차별화하는 다양한 방법(주구, 구획식 묘역, 부장품의 종류와 수량, 상석의 규모, 입지, 하부구조의 규모 등) 중에서 아직 채택하지 않은 효율적인 요소를 위계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반구성원에 의한 유력자 묘제의 모방에 따른 차별화효과 저하라는 상황 속에서 새롭게 강조되어야 하는 位階 差別化를 위한 사회적 전략의 채용이라는 각도에서 보면 지석묘피장자의 시기별 변동과정에 대한 다양한 동태적 양상의 흐름에 대한 이해도 가능하다. 즉 청동기시대 전기에는 수장이나 유력자들이 대체로 지석묘나 주구석관묘 등의 무덤에 묻히는 경향을 띠다가 청동기시대 후기로 들어오면서 지역에 따라서 일반구성원들의 묘제로 더 넓게 적용되면서 그에 대한 차별화로 묘역지석묘 또는 이단토광의 매장주체부를 가진 지석묘가 출현하거나 비파형동검, 옥장신구 등 위세품의 선별적 매장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표3〉과 〈표4〉가 보여주듯 지역에 따라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비파형동검부장과 구획묘역을 가진 지석묘가 등장하며 청동기시대 후기까지 이러한 전통이 위계의 표시방식의 하나로 확산되고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무덤의 분포양상과 무덤축조집단의 권역

무덤의 분포양상을 통하여 청동기시대 사회집단의 권역을 추정할 수 있는데, 청동기시대 전기는 지석묘나 주구석관묘가 대체로 단독 또는 소규모 군집분포의 양상을 띤다. 다만 예외적으로 춘천 천전리에서는 16기의 주구석관묘가 군집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강원문화재연구소 외 2008:220-256).

청동기시대 후기에는 지역별로 지형의 차이를 포함하여 여러 요인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규모 무덤군- 중간규모 무덤군 - 소규모 무덤군이 일정거리를 두고 분포하는 모습을 보인다. 지석묘의 경우 대군집 지석묘의 분포범위는 대체로 직경 20km내외이며 그 속에 중간

규모지석묘군과 소규모 군집지석묘가 5-10km내외의 간격으로 분포하는 양상⁹⁾이다.

3. 무덤자료로 본 청동기시대 사회구성단위

지석묘집단의 사회구성단위는 지석묘를 하나의 취락이 단독으로 각각 조성하였는가 아니면 하나의 중심취락의 하위취락들이 공동으로 조성하였는가의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양자의 사례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무덤자료를 통해본 청동기시대 사회최소구성단위는 사회적·혈연적으로 유대를 갖는 구성체로서 가구(household)를 상정하며 그러한 양상을 반영하는 것이 청동기시대 전기와 후기의 무덤분포양상에 나타나는 2-5개로 근접하여 분포하는 소군집 지석묘군으로 추정된다. 전기에 비하여 후기에 도 사회최소구성단위에서의 변화는 없으나 지석묘군이 대형화되거나 대규모 지석묘군 아래에 중소규모의 지석묘군이 분포하는 양상(사천 이금동지석묘군/ 김해 율하리 지석묘군/대구지역 지석묘군 등)은 청동기시대 후기에 들어 지역별로 사회위계화가 진행됨을 암시한다. 대가족제도가 청동기시대 전기의 대가족제도에서 후기의 핵가족제도로 변화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묘제 상으로는 사회최소구성단위의 표현방식에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후기로 가면서 가족제도에서의 변화라고 하기보다는 거주방식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김권구2005:147-149, 김승옥2006:29, 이형원2009:135-137).

청동기시대 후기에는 적어도 3단계의 사회집단의 위계가 ㉠소규모 집단 - ㉡다수의 소규모 집단으로 구성된 중간 규모집단 - ㉢ 다수의 소규모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중간규모 집단을 거느린 대규모 집단 또는 지역공동체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9) 구체적인 분포양상은 다음과 같다.

- ① 전남지역의 경우 지석묘의 소밀집지(86개)는 대체로 직경 4-6km 내외의 범위에 분포하고 3-6개의 소밀집지가 모여 하나의 밀집분포권을 이루며 밀집분포권의 직경은 대체로 18km-22km이다. 소밀집지간의 중심지간의 거리는 대체로 7km-13km 밀집분포권 중심지간의 거리는 20-26km 정도여서(이영문 1999:44-45) 동시기성에 대한 문제, 유적의 변형에 따른 문제, 발굴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논의하는 문제는 있으나 전남지역 지석묘군별 권역에 관한 암시를 준다.
- ② 사천 와룡산지대에서는 이금동지석묘군축조집단이 큰 규모의 집단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그림1> 그로부터 직선으로 약 8km 떨어져 북서쪽에 위치한 덕곡리지석묘군이 중간규모 집단에 해당되고 그 사이에 1.5-2.5km 정도의 유사한 등간격으로 분포한 소규모 지석묘군이 소집단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慶南考古學研究所2003:27-29).
- ③ 김해 율하리유적에서는 A지구에서 75기, B지구에서 17기, E지구에서 6기, F지구에서 2기 등 모두 100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는데(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9a:1) 대군집 속에서 적어도 6-7개 이상의 지석묘군이 중소군집을 이루며 밀집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④ 대구지역의 4개 큰 군집은 대구 신천유역의 지석묘군, 남부지역지석묘군, 서부지역지석묘군, 동부지역지석묘군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金廣明2001:14-19) 이들은 대구분지내의 지석묘축조 중심세력 4개와 그 하위에 10개-20개 이상의 소군집의 지석묘 축조집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추정된다.
- ⑤ 한강유역의 경우 지석묘 120개소 487기를 분석한 연구사례는 3기 이상의 밀집군은 직경 7km 내외에 있는 것이 32개 지역군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박순발1998:29).

그 양상은 다양하여 ㉠와 ㉡로만 구성되어 있는 두 단계의 지역집단도 존재했을 것이며 그러한 특성은 인구규모, 자연환경과 인구부양력, 생업기술과 유형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¹⁰⁾.

-
- 10) ① 이금동지석묘군 속의 60여기의 무덤이 4-5개 내외의 군집을 보이는데 이것은 혈연집단 또는 계서집단의 소군집을 보여주는 지도 모른다. 또 사천 이금동지석묘군이 청동기시대 후기에 중심마을과 다수의 하위마을이 공동으로 축조하고 관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해안가와 곡간평야지대 등의 교통로를 따라 16km에 걸쳐 열상으로 분포하는 사천지역의 지석묘유적(그림1)은 청동기를 부장하는 여수, 마산, 창원, 김해, 거제의 지역공동체를 연결하는 해안네트워크의 하나로써 주목할 필요가 있다(경남고고학연구소2003:28, 송만영2007:51).
- ② 진주 이곡리지석묘군에서의 유적 내 배치양상은 크게 대형묘역을 가진 지석묘를 중심으로 그 군집양상이 3군으로 나누어지며 1군과 3군은 대형지석묘를 중심으로 5-6기의 중소형지석묘가 군집을 이루고 있다. 한편 2군의 다양한 형식의 무덤들을 구획식묘역을 갖춘 지석묘의 매장묘로 보기도 하나(배덕환 외 2007:255) 실제로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가족묘 또는 동일계열 계서집단묘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 ③ 창원 진동(옛 마산 진동)지석묘군은 묘역을 별도로 만드는 인근의 집단을 동급 또는 하위에 두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본 지석묘군 내에서도 3-4개로 분리되어 군집하는 소집단이 함께 동일한 묘역을 사용하며 관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당시 사회구조를 엿보게 한다.
- ④ 김해 옐하리지석묘군의 분포 양상을 토대로 볼 때 김해 옐하리지석묘군은 주변의 군소 지석묘군을 하위에 두고 중심마을과 그 하위마을에 속한 집단이 공동으로 축조한 혈연집단의 공동무덤으로써 지석묘군 자체도 6-7개 내외의 소군집을 이루고 있다.
- ⑤ 남강변의 충적대지 등에 이러한 많은 지석묘유적이 산재하고 또 이보다는 규모가 작은 지석묘군이 산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산청 매촌리유적은 주변의 지석묘군을 하위에 둔 대형 지석묘군으로써 중심취락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문헌 곳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산청 매촌리유적의 지석묘 및 석관묘군은 이들이 모두 동시기라고 가정한다면 4-5개의 소군집으로 나뉘는데 이는 중심지석묘군 축조사회를 구성했던 혈연집단 또는 계서집단의 친소관계를 반영하는 양상일 가능성이 크다.
- ⑥ 대구 대천동지석묘군에서는 68기의 매장주체부가 조사되었는데 그 분포양상은 약 15m × 15m 정도의 좁은 면적에 41기의 지석묘하부구조가 조사된 대구 상동지석묘의 양상(신중환2000:115)과 유사하다. 신천권역, 진천권역 등에 각각 대규모 군집묘역군을 가진 중심취락과 그에 직접 속한 다수의 하위취락이 동일한 묘역을 축조관리하고(하진호2009:133-134) 또 그 사이의 별도의 하위취락은 별도의 중소규모 지석묘군을 축조하던 사회구조가 현재의 대구지역 내 지석묘분포양상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된다.
- ⑦ 대구 상인동지석묘군에서는 부석이 깔린 구획식묘역을 가진 4기의 석관과 1기의 원형유구가 연결되어 길이 27m 폭 8m의 집단묘역을 이루고 있고 출토유물로는 마제석검, 석촉, 흉도, 곡옥 등이 있고 다른 지석묘군에 비하여 청동기는 출토되지 않았어도 부장품이 출토된 편이다(경북대학교박물관 1992:134, 국립대구박물관2001:33). 인근 상인동 98-1번지 일원 아파트신축부지 내 유적에 2-4기가 하나의 군을 이루며 확인된 12기의 지석묘군(大東文化財研究院2008:108-109)과 차별화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 ⑧ 진안 여의곡 A지구지석묘군은 잔존된 상태를 고려해 볼 때 적어도 8-9개 정도의 내부 소집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도면참조). 그런데 여의곡지석묘의 경우 무덤을 배치하면서 다른 집단과 차별화는 하지만 군집성을 띠는 특성이 있다. 또 여의곡지석묘군에서 비파형동검과 옥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아마도 여수지역과는 달리 묘역의 입지와 상석 등 외부에 좀 더 효율적으로 과시되는 방식으로 당시의 계서관계를 표현하던 것과 관련될 수 있다.
- ⑨ 여수 적량동 125번지와 여수 월내동487번지 일원의 상촌지석묘 III에서 조사된 지석묘 관련 매장주체부는 147정도가 되고 이들은 6개의 소군집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혈연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4. 무덤의 위계화와 지속성 검토

불평등은 수렵채집사회에서 집약농경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에서 나이, 성별, 권위, 기술, 위세에 따라서 나타남으로 중요한 것은 언제 불평등이 나타났는가가 아니라 왜 불평등이 심화되고 제도화되는가이다. 또 제도화된 사회적 불평등의 출현문제에 있어서 사회 자체의 내부요소와 외부요소(기후, 환경, 인구), 양자의 동태적 관계를 중요시해야 한다(Feinman1995:255-279). 따라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청동기시대 무덤의 입지, 규모, 묘역, 출토유물의 검토를 통한 사회위계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식묘군 사이의 입지와 묘역에서의 차이

① 청동기시대 전기의 양상

청동기시대 전기의 경우는 지식묘 중에서 입지, 묘역, 상석, 매장주체부, 출토유물 등에서 차이는 어느 정도 존재했다고 보여 진다. 예를 들어 서천 오석리의 주구석관묘와 춘천 천전리 A-나지구 주구석관묘, 마산 진북 망곡리 주구묘<그림3a> 등도 주구를 돌림으로써 석관묘를 다른 공간과 차별화했다는 점이 인정된다. 특히 마산 진북 망곡리 주구묘에서는 해당 유적의 다른 유구에 비하여 입지의 우월성과 묘역의 차별성뿐만 아니라 옥과 석검 등 부장품의 상대적 풍부함 속에서 차별성이 엿보인다(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외 2009b:89).

청동기시대 전기의 경우에는 단독묘 내지는 2-3기의 지식묘가 군집하는 양상을 띠고 있어서 당시 지식묘 축조와 출토유물에서의 표준화는 점차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양상은 덜 나타나고 있다.

② 청동기시대 후기의 양상

이에 비하여 청동기시대 후기에는 지식묘군 사이에 군집 수에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며 하위지식묘로 추정되는 지식묘집단도 다수 보이기 시작한다. 묘역, 상석, 하부구조의 거대화<그림9a>, <그림9b>, <그림9c>와 출토유물에서의 차별화도 진행된다. 그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천 이금동의 경우 전체 묘역을 공유하면서도 집단별로 세부적인 구획묘역 또는 열을 이루는 무덤의 배치를 하는 양상이 보이지만<그림7d> 구획묘역의 존재여부나 무덤의 규모와 비례하여 출토유물에서의 차별성은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비파형동검이 출토된 C-10호 묘와 D-4호 묘 모두 입지와 묘역 그리고 규모에 있어서 다른 인근의 것에 비하여 차별성을 보이지 않은 상태로 군집을 이루며 동일한 공간을 공동묘역으로 사용하고 있다. 비파형동검과 관옥이 다수 밀집되어 출토되는 구역이 사천 이금동지식묘군의 D군임을 보여주지만 D군의 무덤들은

그 규모나 묘역의 차별화의 측면에서 A군, B군, C군에 비하여 우월해 보이지 않는다.

송국리취락 일반구성원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취락외부에 위치하는 남산리유적과 수장층의 무덤묘역으로 추정되는 송국리52지구 취락내부에 위치하는 무덤군은 서로 공간적으로 차별화되어 분포하고 있다(국립중앙박물관1979:106-119, 武末純一 2002:34-35). 그런데 송국리 52지구의 유아용으로 추정되는 2기의 옹관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이는 관옥 등 다수의 옥기(이건무1979:115-119)를 위세품<사진1c>으로 볼 경우 이것은 유아의 무덤에서 출토된 위세품으로써 청동기시대 후기 송국리 취락집단에서 귀족지위세습을 암시하는 고고학사례로 볼 수도 있어서 주목된다.

창녕 유리지석묘와 같은 주위 평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구릉 정상부에 독립적으로 입지하는 경우¹¹⁾는 다른 지석묘들과 차별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사천 이금동지석묘군, 김해 울하리지석묘군, 산청 매촌리지석묘군, 진안 여의곡지석묘군 등 많은 지석묘도 나름대로 묘역과 분포입지를 통해 다른 지석묘군과 차별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구 상동지석묘군<그림5b>이나 대구 대천동지석묘군<그림5c>, 대구 신서혁신도시 지석묘군<그림5a>, 보령 평라리 지석묘군, 고창 죽림리와 도산리지석묘군 등은 커다란 인위적 구획을 한 경계가 없다하더라도 모여 있는 것 자체가 당시 사람들의 인지적인 측면에서 묘역역할을 하고 특정묘역에 묻히는 것 자체가 개인이 가졌을 혈연관계뿐만 아니라 계서를 보여주는 사례인지도 모르겠다.

대구 상동지석묘군처럼 군집지석묘 사이에 무덤의 규모와 입지 그리고 출토유물에서 집단내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유형(대구 상동유형) - 무덤의 규모와 입지 그리고 출토유물에서 차이가 발생하지만 공동체 공동묘역을 함께 사용하는 유형(사천 이금동유형) - 무덤의 규모와 입지, 출토유물상의 차별도 발생하거나 공동체 공동묘역과는 별도 공간을 묘역으로 사용하는 유형(창원 덕천리유형, 부여 송국리 석관묘집단)이 보인다.

2) 개별 지석묘 군집규모의 정도

지석묘군은 대형의 경우 여수 적량동 상촌지석묘군III의 경우와 같이 구획식묘역지석묘 97기를 포함하여 150여기의 매장주체부가 확인된 경우와 50기-100기 내외, 20-50기 내외, 10기-20기 내외, 10기 이내의 규모로 편의상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지석묘군 규모에서의 차이는 지석묘군 분포양상 속에 잘 나타나있다. 대구 대천동지석묘군 68기와 대구 상동지석묘군 41기와 각각의 인근에 분포하는 지석묘군집을 고려하면 청동기시대 후기 지석묘군 군집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지석묘가 입지하는 주변에 보성 동촌리나 사천 이금동 그리고 여수 봉계동 일원의 지석묘

11) 약 50m 떨어진 곳에 다른 지석묘1기도 함께 조사된 바 있다(김재원 외 1967:173-178).

군과 같이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중소규모의 지식묘들이 있어 주변 환경이 갖는 인구부양능력의 잠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보인다. 아마도 『삼국지위서동이전』 변진조(弁辰條)에 나오는 대국(大國) 4000-5000가(家) 소국(小國) 600-700가(家)로 구성되어 있다는 기록은 비록 청동기시대와는 관련 없는 후대 인구에 관한 기사이지만 청동기시대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규모는 작더라도 지역별로 일정 정도의 인구차이는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자료로 판단된다.

3) 지식묘의 장기지속성

대부분의 경우 장기지속성여부의 판정은 현재의 자료양상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여수 적량동 상적지석묘유적의 사례이다. 동 지식묘유적에서는 7개의 소군집양상의 지식묘군<그림10>이 있는데 각 소군집에서 1개씩의 비파형동검이 출토되었는데 7개의 소군집을 대등한 입장에서 보면서도 이들 차별화된 소군집 양상의 지식묘군이 동시에 존재하였는지 아니면 7대에 걸쳐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 중간으로서 2-3개집단이 2-3세대에 걸쳐 만들어진 것인지를 검토할 과제라고 했고(武末純-2002:33), 이것의 정리 없이 비파형동검의 부장만을 가지고 지식묘축조집단의 상대적 우위를 논할 수 없고 또 각 소군을 구성한 집단의 성격이 혈연관계인지 또는 취락군의 출신자인지도 알 수 없어서 문제라는 지적(이희준 2011:54-55)은 지식묘군의 장기지속성 여부의 평가가 어렵고 또 지역별·집단별 지식묘조성의 원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층화나 계서화의 진행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무덤 축조의 장기지속성이 부분적으로 파악될 수도 있다. 고창 죽림리, 상갑리, 도산리 일대의 지식묘군 같이 그 수가 많은 경우¹²⁾가 그러하고 대구 상동지석묘의 경우처럼 동일묘역을 사용하면서도 남북장축의 28호 지식묘가 동서장축의 26호 지식묘를 파괴하면서 축조되는 양상(신중환2000:64-68)은 적어도 파괴된 지식묘의 피장자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적어도 4-5세대의 시간(약100년 정도)이상 흐를 정도로 장기지속성을 가지고 묘역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기에서 후기 이르는 시기에 지속적으로 조영된 사례는 사천 이금동유적(송만영2007:36), 합천 저포리E지구 지식묘군, 진안 안자동지석묘군<그림2a><그림2b>, 진안 풍암지석묘군 등이 있는데 이들 무덤들을 통해서도 축조기간의 장기지속성이 암시된다.

12) 확인된 지식묘의 수가 481기에 이르며 2지구 10개 군으로 군집하여 분포하는 양상이다(湖南文化財研究院 외2001:59).

4) 지석묘 출토유물의 차별성

지석묘의 출토유물로는 비파형동검, 비파형동모, 비파형동촉 등의 청동기, 마제석검과 마제석촉 등 석기류, 홍도 등 토기류, 관옥 등 옥기류가 있다. 그동안 비파형동검이 출토되거나 관옥 등 옥기가 출토된 지석묘는 그렇지 아니한 지석묘보다 유력자의 무덤으로 분류되어 왔다. 실제 그렇게 보는 것이 대체로 타당하기는 하나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적 위계를 표현하는 기준이나 전략은 집단, 시기, 지역 그리고 맥락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출토유물상의 위계를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청동기 등 출토유물의 유무로써 여수지역의 사회분화가 더 진행되었고 대구지역이나 울산지역 등은 그에 비하여 후진적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계서의 진행정도 등 불평등정도는 부장유물의 종류와 수량뿐만 아니라 지석묘의 규모와 해당집단의 인구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들의 계서차별화의 전략과 관리방식에 대해 주목하여야 한다. 단순히 check-list를 만들어 집단의 불평등정도를 평가하려는 것은 위험하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 집단의 시조가 묻혀 있는 장소 부근에 묻히는 것 자체가 상징적 역할을 하여 피장자와 그 관계자들의 사회적 중요성을 보장했으므로 부장품의 연속적인 부장은 불필요할 수 있다는 견해(우정연2010:82)를 고려하면 비파형동검이나 마제석검 등과 같은 부장품의 종류와 많고 적음에 의한 피장자의 신분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어서 당시의 유물부장의 기준과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유물의 출토양상으로 볼 때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부장유물의 차이는 무덤 사이에 나타나며 청동기시대 후기로 가면서 부장유물의 차이가 보다 명확해지는 경향이 있다¹³⁾. 그러나 지역과

13) 지석묘 출토유물의 차별화를 보여주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① 여수 적량동 상촌지석묘 III의 116호지석묘는 F군집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상석무게는 11.9톤으로 상석과 묘역의 규모는 군집 내에서 가장 크며 비파형동검도 출토되어 동일묘역의 다른 지석묘와 차별화되고 있다.
- ② 부여 남산리 무덤유적에서는 출토유물이 빈약하며 규모도 작은 반면 송국리52지구는 1호석관묘에서는 비파형동검, 동착, 관옥 등 다양한 부장품이 출토되어 대비된다. 또 송국리 52지구의 추정 유아용 옹관묘에서 관옥 등 다수의 옥기가 출토되었는데(이건무1979:115-119) 이를 위세품으로 볼 경우 이것은 청동기시대 후기에 유아의 무덤에서 출토된 위세품의 사례이며 세습에 의한 귀족지위를 암시하는 발굴 자료로서 중요하다.
- ③ 사천 이금동의 청동기시대 후기 분묘들은 비파형동검이 출토된 C-10호 묘와 D-4호 묘 모두 입지와 묘역 그리고 규모에 있어서 다른 인근의 것에 비하여 차별성을 보이지 않는다. 사천 이금동지석묘군에서 유구별로 관옥이 다수 출토되었다: A-1호묘(관옥 26점), B-2-1호묘(천하석제 구옥 1점과 관옥4점), B-6호묘(천하석제 원반형옥 2점 관옥67점), B-15호묘(관옥49점), C-8호묘(관옥61점), C-9호묘(관옥208점), D-1호 석관묘(관옥40점), D-3호 석관묘(관옥39점).
- ④ 여수 적량동 지석묘군에서는 7개의 비파형동검이 지석묘군 내의 7개의 소군집 별로 각 1개씩 출토되었고 이에 비하여 여수 평여동에서는 옥이 다수 출토되었다.
- ⑤ 마산 진북 망곡리 주구묘의 경우 입지의 우월성, 큰 규모 뿐만 아니라 석검과 다른 무덤에 없는 옥이 부장되었다(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9b:89).
- ⑥ 김해 율하리지석묘군에서는 비파형동검 등이 출토되지 않고 주로 마제석검, 석촉, 홍도가 주로 출토되어 유물차별화양상이 미약하다. 다만 유물의 양식상 표준화나 묘제의 표준화가 보여주듯 이념적, 의례적 전통 등 규범의 표준화가 이루어졌고 거대한 규모를 통해서 계서를 강조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집단에 따라서는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특정유물을 가지고 사회 위계화를 과시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비파형동검이나 옥장신구의 유무만을 가지고 사회위계화와 수장의 존재여부를 따지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적어도 비파형동검이나 옥이 부장된 무덤은 다른 무덤과는 부장품의 희귀성의 측면에서 다른 무덤과 차별되는 것임에 틀림없다.

청동기시대 후기 부여 송곡리석관묘 출토 비파형동검과 관옥 등의 유물과 유아의 것으로 추정되는 옹관묘군에서의 옥장신구는 부장유물의 차별이 뚜렷하고 귀속지위 세습화의 양상도 암시된다.

5) 지식묘군 내에서의 지식묘별 차이

지식묘군 내에서 부장품의 존재여부와 종류와 양 이외에도 지식묘 상석의 규모나 매장주체부 규모에서도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언양 서부리지석묘의 거대한 상석, 김해 율하리A-2지구 19호묘의 거대한 매장주체부¹⁴⁾(그림9b), 묘역 안에 존재하는 지식묘와 그렇지 않은 지식묘, 보성 송곡리지석묘군에서 보이는 상석의 무게가 45톤에 이른 7호지석묘 상석과 5톤 내외의 다른 지식묘 상석 등은 청동기시대 후기 지식묘군 내에서 개별지식묘의 규모 차이가 나타남을 잘 보여주고 그 차이가 청동기시대 전기보다 더 자주 나타난다. 그러나 한편으로 안동 지례동지석묘군(그림6c)이나 영천 용산동지석묘, 대구 대천동지석묘군(그림5c)과 같이 대체로 지식묘군 내에서 큰 규모의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지식묘군도 있다. 아마도 이들은 지

-
- ⑦ 비파형동검 등의 청동제품을 부장품으로 지닌 지식묘가 동일지식묘군의 다른 지식묘와 구조나 규모 상에서 큰 차이가 없는 사례는 승주 내우, 보성 덕치리, 고흥 운대리, 여수 봉계동, 여수 적량동, 여수 평여동, 여수 오림동 등지에서 보이고 이와는 달리 창원 덕천리지석묘는 단독으로 장방형 구획묘역을 이루며 입지하고 있음을 구분하며 전자의 구성원들이 공개적으로 취락구성원들에게 외부적 파워를 과시할 만큼 확고한 파워를 그 사회 내에 구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면서 해안선을 따라 교역을 주도한 집단의 것으로 보고 취락 내에서 내부적인 파워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본 의견(추연식:2001:185-186)은 당시 집단별로 입장과 전략이 달랐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 ⑧ 대구 상인동지석묘군에서는 부석이 깔린 하나의 구획식 묘역(길이 27m 폭 8m)을 가진 지식묘군이 조사되었는데 마제석검, 석촉, 홍도, 관옥 등이 출토되어 다른 지식묘군에 비하여 청동기는 출토되지 않았어도 부장품이 출토된 편이어서(경북대학교박물관 1992:134, 국립대구박물관2001:33) 묘역과 출토유물 상에서 나름대로의 차별성이 보인다.
 - ⑨ 칠곡 복성리지석묘군의 경우 구획식 묘역을 가진 지식묘로서 12호 석관묘에서 관옥 등 유물이 집중된 접이 눈에 띈다. 칠곡 복성리지석묘 하부구조 17기가 확인되었는데 규모가 큰 묘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배치하고 그 주변에 각각 상대적으로 작은 묘를 조성하였다. 그런데 장방형의 포석(鋪石)시설을 갖춘 12호 석관묘 석관내부에서 유경식석촉 11점, 홍도1점, 관옥40점 출토되어 묘역과 출토유물로 볼 때 지식묘군 내에서 차이가 남을 보여준다.
 - 14) 김해 율하리지석묘군은 구획묘역시설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면서 다단묘광을 하거나 넓이나 규모를 극대화하려 하고 지식묘의 경우는 석관묘에 비해 대체로 규모가 크고 독립적인 위치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윤호필 외2009:272-292). 그러나 김해 율하리지석묘군 속에서 구획식 묘역시설이나 다단묘광 무덤(A2-2호묘, A2-17호묘, A2-19호묘, A2-25호묘, A1-11호묘 등)의 대규모 지식묘군은 주로 A2지구 구역과 인접구역에 밀집되어 있고 비교적 지식묘 하부구조의 규모가 대형이라고 할 수 없는 B-9호묘에서 세형동검과 검파두식이 출토되어 무덤의 규모와 부장유물출토양상이 예측한 바와 다른 경우가 있다.

석묘사회 공동묘역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며 지식묘의 상석이 크지 않고 출토유물도 빈약한 점을 보면 상호간의 차별화보다는 공동체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나 집단지향형 사회일 가능성도 있다.

V. 청동기시대 사회의 구조의 변천과 위계의 불안정성

1. 청동기시대 사회의 구조와 변천

청동기시대 초기의 경우 분묘자료가 거의 없어서 당시의 사회구조에 대하여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돌대문토기단계 주거지의 경우 5기 내외의 중대형주거지가 총적대지에 입지하는 양상이어서 소규모 취락의 분산적 분산구조였던 것으로 보인다. 청동기시대 전기에도 이러한 양상은 유사하여 지식묘나 석관묘 등이 독립적으로 배치되거나 소규모로 군집하고 있다. 그러나 청동기시대 전기에 소규모 군집이나 독립적으로 배치된 분묘의 양상만으로 유력자의 분묘를 찾기는 어렵지만 <표1>에 보이듯 춘천 천전리 주구석관묘나 비파형동검이 출토된 대전 비례동지석묘와 마산 진북 망곡리유적<그림3a><그림3b> 등은 유력자의 묘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도 그러한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는 무덤으로 보인다.

청동기시대 후기에 들어오면 지식묘 등 분묘의 규모가 커지고 구획식 묘역을 가진 지식묘와 같은 대형지석묘가 등장한다. 또 지식묘군은 열상배치와 연접배치<그림6a><그림6b> 등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며 지식묘군의 군집의 규모가 커진다. 이러한 지식묘의 군집양상은 직경 20km 거리를 중심으로 하여 대규모 지식묘군 군집이 분포하는 양상이어서 밀집분포권 중심지간의 거리는 20-25km내외인 것으로 보이며(이영문1999:44-45) 대체로 직경 4-6km 내외의 범위에 3-6개 지식묘로 구성된 소밀집지가 존재하는 구조가 보인다. 그러나 지형과 지역 그리고 시기에 따라 영역의 범위는 약간 달랐을 수 있고, 지식묘간의 분포양상과 규모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규모 집단묘역-중간규모 집단묘역-소규모 집단묘역과 같은 구분도 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취락의 위치와 분포양상이 농업적·환경적 요소보다는 사회·정치적 요소와 더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연구사례(Drennan and Quattrin1995:207-233)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취락과 연계된 지식묘의 분포도 역시 사회·정치적 요소·교통로 등과 관련되어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청동기시대 사회는 전기에 분산적 분포양상의 소규모 사회집단과 그 상위의 중

대규모집단구조를 띠는 구조에서 청동기시대 후기에는 대규모사회집단 - 중간규모사회집단 - 소규모사회집단과 같은 2-3단계의 사회구조를 가지게 되었으며 최소 사회구성 단위는 변함없이 지석묘 2-3개 내외로 소군집양상을 띠면서 확대가족단위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청동기시대 전기에도 구획식묘역지석묘나 주구석관묘의 일부 사례의 경우처럼 유력자로서의 수장(首長)이 있었으며 후기로 가면 보다 확대된 지역공동체를 이끄는 좀 더 강력하고 대외관계망을 가진 수장이 출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수장의 위계제도화는 아직 불완전한 상태였고 그러한 상태 속에서 좀 더 다양한 묘제와 부장품에서의 변화가 추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부여 송국리 52지구 석관묘와 옹관묘의 사례처럼 수장과 사회적·혈연적 친연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별도로 구획된 차별화된 묘역에 월등한 부장품을 가지고 묻히고 또 어린이가 묻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옹관에서 나온 관옥 등의 존재(사진1c)는 당시 사회계서가 세습화되는 한 단면을 보여줄 수 있어서 아마도 청동기시대 후기에 지역별로 계서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2. 청동기시대 사회의 성격과 위계화

앞장에서 청동기시대 후기 지석묘 등 무덤을 중심으로 지석묘집단의 규모, 묘역과 입지, 개별 지석묘의 규모와 출토유물 등을 중심으로 그 존재를 과시하거나 차별화하는 양상이 보여 당시 사회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장(首長)의 존재가 나타나고 성공적인 수장은 지역공동체의 수장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계서와 사회적 불평등이 세습화되는 것과 같은 제도화는 차별적 지석묘군의 지속적 축조와 같이 지역별로 일부 일어나기도 했겠으나 안정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무덤의 장기지속적인 축조와 관리를 나타내는 사례는 많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김승옥2007:105 배진성2007a:224) 등과 같이 계층구조를 기존의 기준만을 가지고 여러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며 그러한 기준은 사회위계화를 구분하는 필요충분조건은 될 수 없어서 지역마다 나타나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비파형동검 등을 위세품으로 보는 경우라도 그것은 여수지역과 경남 해안지역 등 비파형동검의 생산과 유통네트워크에 연관된 집단들에만 적용하여야 하며 그러한 집단이라도 사천 이금동, 창원 덕천리, 김해 울하리 등에서 비파형동검보다는 지석묘 상석과 묘역 그리고 하부구조의 대규모화와 같은 과시성을 더 큰 사회분화의 표식으로 삼았을 수 있다. 그래서 비파형동검출토지석묘의 입지와 규모가 반드시 해당 지석묘군에서 대형이거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울산지역의 경우 비파형동

검과 옥과 같은 부장품과 묘역의 대형화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경남지역이나 여수지역보다 사회구조의 분화가 덜 되었다고 볼 수 없다(黃昌漢2010:188-189). 또 부여 송국리 등 금강유역은 여수반도를 포함한 전남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식묘의 수와 규모가 작으며 비파형동검도 상대적으로 적게 확인되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청동기시대 금강유역의 사회발전이 여수지역보다 늦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각 지역별 인구규모, 생업유형과 기술, 교역, 자연환경과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요소와 상호작용하며 사회분화가 진행됨으로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하겠다.

위에서 검토한 지식묘군의 입지와 규모, 지식묘군 내에서의 개별지식묘의 입지, 묘역, 규모 그리고 부장품 등에서 모두 우월한 지식묘는 수장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들이 반드시 그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며 해당 집단의 계서와 불평등의 관리전략과 방식에 따라 기준은 변형될 수 있다고 본다. 지식묘 등 무덤의 구조적 특성과 출토유물의 부장양상이 지역별·시대별로 다양한 것은 당시 사람들의 사회적 위계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화과정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불평등의 개념도 상대적인 것이며 제도화되는 방식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도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현대의 연구자들이 너무 간단한 사회분화기준을 만들고 널리 알려진 사회발전단계에 관한 모델 속에 실제로는 다양한 과거 지식묘축조집단의 사회구조와 특성을 단순하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강박관념(Feinman and Neitzel 1984:39-102)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며 이것이 바로 청동기시대 사회연구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청동기시대 사회분화는 청동기시대 후기에 종료되지 않았으며 완결되지도 않았다.

3. 지식묘 축조집단의 사회경제적 토대

지식묘 축조사회는 단순수장사회(simple chiefdom)로서 불평등이 점차 심화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그 속도도 지역과 집단 그리고 시기에 따라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식묘축조사회에서 불평등이나 계서를 나타내는 기준도 서로 다르게 채택되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을 감추기 위하여 공동체적 요소를 더 강조하는 지식묘사회에서는 지식묘간 차별성이 덜 나타나는 방식을 택하는 집단도 있었을 수 있다.

불평등의 기원을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를 반드시 고려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어떻게 재정적으로 뒷받침되는가에 관심을 두어야 하며 장거리교역품은 추종자와 권력을 키우는데 중요함으로 정치적 권위의 성장에 중요하다(Plog1995:189-206). 그러한 점

에서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지식묘축조집단의 사회분화를 뒷받침한 경제적 토대와 생업시설과 잉여자원의 관리방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역별로 다양성은 있지만 청동기시대 후기에는 그동안 발굴된 경작유구와 고무래 등의 농기구가 암시하듯 농경의 집약화와 수렵, 채집, 어로 등의 혼합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생업활동 속에서 잉여물의 관리와 지속적 잉여산출은 계서사회의 유지와 사회분화의 심화를 가능하게 한 재정적 토대였을 것으로 보인다. 세습적인 신분분화의 시작은 농경의 확산과 연관된다면서 초기 농경사회에서는 취락의 규모와 조직, 교역, 의례, 그리고 사회조직에서의 급격한 변화가 발견되는데 (Price 1995:129-151) 우리나라의 경우 청동기시대 후기에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도 농경의 확산과 본격화에 따르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집약농경의 발전은 초기단계의 위계화와 관련되며 불평등이 집약농경에 알맞은 영역에 대한 경쟁에서 출현한다는 견해 (Gilman1995:235-251)와 유사한 시각의 견해가 우리나라에서도 제기되었다. 즉 지식묘나 입석과 같은 거석기념물과 공동묘역은 정착농경의 본격화와 집약화가 확산되고 인구증대가 이루어지면서 한편으로는 경작지를 포함한 집단의 영역에 대한 배타적 점유를 정당화할 필요성이 커지는 청동기시대 농경사회의 기념물로 이해된다는 견해(박순발1998:27, 이성주1999:423-441)가 바로 그것이다. 청동기시대 전기에 비하여 후기에는 대규모 밭이 만들어지고 수로시설도 다양화되며 자급자족을 넘어서는 잉여물도 생산되는 단계가 되는데 이러한 농경양상 속에서 지식묘와 석관묘의 대군집화, 연결배치, 대형지석묘와 대형묘역지석묘의 축조 등이 이루어지고 계서가 표현되며 경제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엘리트에 의한 독점적 농경기술이 농경자체를 위계화시켜 복합사회화 되었다는 견해(윤호필2010:11-19)는 엘리트의 존재와 역할을 너무 강조한 느낌이다.

Ⅵ. 맺는말

청동기시대 사회는 전기와 후기에 걸쳐 사회위계화가 진행되었던 사회로써 아직 불평등의 제도화가 안정화되지 않은 단순수장사회단계의 계서사회로 판단된다. 특히 청동기시대 사회의 위계화의 진전양상이 엇보인다.

무덤으로 본 청동기시대 사회구조는 취락의 위계화와 유사하게 청동기시대 전기에는 아직 위계화가 뚜렷하지 않고 소군집 무덤의 사례로 그 특성이 대표된다. 그러나 청동기시대 후기로 가면 대규모 무덤군-중간규모 무덤군-소규모 무덤군의 분포양상과 같은 3단계에 이르는 무덤군집규모상의 위계화가 나타나며 개별무덤의 규모나 부장품 그리고 입지에서의 차별화도 좀 더 명확해지는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청동기시대 수장(首長)의 출현과 성장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청동기시대 위계표시방식은 지역별로 다양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사용된 에너지총량이나 특정 위세품의 존재유무만으로 위계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청동기시대 후기 무덤의 규모와 입지, 묘역, 군집 수, 부장품의 질과 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위계를 표시하였을 것임으로 어느 하나 만의 충족만으로 위계정도나 사회분화정도를 표시하기는 어렵다. 사회위계의 차별화 방식으로 묘역, 입지, 하부구조의 거대화나 부장품의 차별화방법이 채택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너무 간단하고 도식적인 사회위계화의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 특정 틀에 근거하여 청동기시대의 사회위계화와 유력자의 등장을 논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비파형동검이나 옥장신구의 부장여부 등만을 가지고 논의했던 사회위계화도 그 중의 하나이다. 여러 사회발전모델에서 chiefdom 또는 계서사회 등으로 너무 간략하게 도식화하여 강제로 분류 배치하였지만 실제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분화와 성격을 가진 집단들을 그 분류틀만 가지고는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

청동기시대 후기에는 적어도 불완전하지만 불평등의 제도화가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후기까지 이어지며 장기간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지식묘군의 사례와 부여 송국리 52지구 유아가 피장자인 것으로 추정되는 웅관묘에서 출토된 옥류의 사례에서도 암시된다.

이 글에는 많은 논리비약이 있고 또 유구의 동시기성의 가정에 따른 무리를 하고 있음을 밝히며 많은 비판을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고일홍, 2010, 「무덤 자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현대 고고학의 최근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漢江考古』 제4집, 한강문화재연구원:7-26.
- 金庚澤, 2004, 「제2장 보성강 유역 지석묘사회의 연구- 지석묘 피장자의 위계를 중심으로-」, 『동북아 청동기시대 문화 연구』(崔夢龍·金庚澤·洪亨雨 편저), 도서출판 주류성:47-85.
- 金廣明, 2001, 『大邱·慶山地域 支石墓 研究』(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권구, 2005,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농경사회』, 학연문화사.
- 金吉植, 1994, 「扶餘 松菊里 遺蹟 發掘 調査 概要와 成果」, 『마을의 考古學』(제18回韓國考古學全國大會 發表要旨):177-193.
- 김승욱, 2006,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 『한국고고학보』 60호:4-37.
- _____, 2007, 「분묘자료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조직과 변천」,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편, 사회평론:61-139.
- 김승욱·이종철·김은정, 2001a, 「V. 顔子洞 遺蹟」, 『鎮安 龍潭댐 水沒地區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II』, 全北大學校博物館·鎮安郡·韓國水資源公社:207-295.
- 김승욱·이종철·조희진, 2001b, 「IV. 慕谷 遺蹟」, 『鎮安 龍潭댐 水沒地區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II』, 全北大學校博物館·鎮安郡·韓國水資源公社:135-206.
- _____, 2001c, 『鎮安 龍潭댐 水沒地區內 文化遺蹟發掘調査 報告書 X 風岩遺蹟』, 全北大學校博物館·鎮安郡·韓國水資源公社
- 김승욱·이종철, 2001d, 『鎮安 龍潭댐 水沒地區內 文化遺蹟發掘調査 報告書 VIII 如意谷遺蹟-본문-』, 全北大學校博物館·鎮安郡·韓國水資源公社
- 金載元·尹武炳, 1967, 『韓國支石墓研究』(國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 第6冊).
- 金賢, 2003, 「梨琴洞 支石墓의 配置形態와 築造順序」, 『泗川 梨琴洞 遺蹟』, 慶南考古學研究所:346-352.
- 盧熾眞, 1996, 「청동기시대」, 『韓國 民族의 起源과 形成(上)』, 韓永熙·李鮮馥·朴善周·盧熾眞, 도서출판 소화:119-183.
- 朴淳發, 1998, 『百濟 國家의 形成研究』(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학위논문).
- 朴洋震, 2006, 「韓國 支石墓社會 “族長社會論”의 批判的 檢討」, 『湖西考古學』 第14輯:5-24.
- 박정화·이정화, 2008, 『김천 문당동유적』,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朴亨順, 2008, 『서천 오석리 유적』, 忠淸文化財研究院.

- 배덕환·이해수·손민주·최은·김지연, 2007, 『晉州 耳谷里 先史遺蹟 I』,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진주시.
- 裴眞晟, 2007a, 『無文土器文化의 成立과 階層社會』, 서경문화사.
- _____, 2007b, 「무문토기시대의 계층구조와 국」,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편, 사회평론:141-178.
- 송만영, 2007, 「남한지방 청동기시대 취락구조의 변화와 계층화」,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편, 사회평론:25-59.
- 申大坤·金圭東, 2001, 『鎭安 龍潭潭 水沒地區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III(本文)』, 國立全州博物館·鎭安·韓國水資源公社.
- 申鍾煥, 2000, 『大邱 上洞支石墓 發掘調査 報告書』, 國立大邱博物館·大邱廣域市.
- 安在喆, 2010, 「韓半島 青銅器時代의 時期區分」, 『考古學誌』 第16輯, 國立中央博物館:5-56.
- 우정연, 2010, 「금강중하류 송국리형무덤의 상징구조에 대한 맥락적 고찰」, 『부여 송국리유적으로 본 한국 청동기시대 사회』 (제38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한국전통문화학교·한국상고사학회:59-102.
- 윤희필, 2004, 「진동리 고인돌」, 『韓國考古學專門事典(青銅器時代篇)』, 국립문화재연구소:499.
- _____, 2010, 「농경으로 본 청동기시대의 사회」, 『慶南研究』 3,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4-25.
- 윤희필·고민정, 2009, 「IV. 고찰」, 『金海 栗下里遺蹟 II』,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272-292.
- 이건무, 1979, 「나. 웅관묘」, 『松菊里 I (본문)』 (國立博物館 古蹟調査報告 第11冊), 國立中央博物館:115-119.
- _____, 2007, 「韓國 青銅器時代 早期設定에 대한 小考」, 『畿甸考古』 제6호:169-210.
- 李東熙, 2005, 『全南東部地域 複合社會 形成過程의 考古學的 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博士學位 請求論文).
- 李東熙·李順葉, 2006, 『여수 화동리·관기리유적-여수 경지정리지구 발굴조사 보고서-』, 順天大學校博物館·麗水市.
- 李相吉, 1996, 「청동기시대 무덤에 대한 일시각」,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刊行委員會:91-114.
- _____, 2004, 「덕천리 고인돌 II」, 『韓國考古學專門事典(青銅器時代篇)』, 국립문화재연구소:147.
- _____, 2006, 「區劃墓와 그 社會」, 『금강:송국리형 문화의 형성과 발전』, 호남·호서고고학회 합동 학술대회 발표요지:61-85.

- _____, 2007, 「祭祀를 통해 본 權力の 發生」,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 편, 사회평론:179-220.
- 이성주, 1999, 「지석묘: 농경사회의 기념물」, 『한국 지석묘(고인돌)유적 종합조사·연구 - 분포, 형식, 기원, 전파 및 사회복원-』, 문화재청·서울대학교박물관:423-441.
- 李榮文, 1990, 『麗川市 鳳溪洞 支石墓』, 全南大學校博物館·麗川市.
- _____, 1993, 『全南地方 支石墓 社會의 研究』, 韓國敎員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_____, 1999, 「湖南地域 青銅器時代 墓制 研究의 諸問題」, 『호남지역의 청동기문화』 (제7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湖南考古學會:23-57.
- _____, 2001, 「韓國 支石墓의 特徵과 그 社會의 性格」, 『史蹟 제391호 高敞 高인돌 遺蹟地表調査報告』, 湖南文化財研究院·高敞郡:427:456.
- 李榮文·鄭基鎭, 1992, 『麗川 五林洞 支石墓』, 全南大學校博物館·麗川市.
- _____, 1993, 『麗川 積良洞 상적 支石墓』, 全南大學校博物館·麗水市.
- 이용조·정동찬·우중윤·윤용현·홍현선, 1996, 『평라리 선사유적』, 韓國水資源公社·忠北大學校博物館.
- 이청규, 2007,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남한에서의 고고학적 접근」,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편, 사회평론:11-23.
- _____, 2010, 「청동기시대 사회성격에 대한 논의- 남한에서의 고고학적 접근-」, 『考古學誌』 第16輯, 國立中央博物館:125-150.
- 李海銖, 2007, 「1. 진주 이곡리 선사유적의 청동기시대 분묘 소고」, 『晉州 耳谷里 先史遺蹟 I』,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진주시. :254-275.
- 이형원, 2009, 『청동기시대 취락구조와 사회조직』, 서경문화사.
- 李熙濬, 2011, 「한반도 남부 청동기 ~ 원삼국시대 수장의 권력기반과 그 변천」, 『嶺南考古學』 58:35-77.
- 林永珍·趙鎭先·崔榮柱, 2003, 『寶城 松谷里 支石墓群』, 全南大學校博物館·益山地方國土管理廳.
- 최몽룡, 1999, 「한국 지석묘의 기원과 전파」, 『한국 지석묘(고인돌)유적 종합조사·연구- 분포, 형식, 기원, 전파 및 사회복원-』, 문화재청·서울대학교박물관:9-31.
- 최몽룡·김경택, 2005, 「청동기·철기시대 연구의 새로운 방향」, 『한성시대 백제와 마한』, 주류성:217-255.
- 崔仁善·李東熙·宋美珍, 2001, 『麗水 禾長洞遺蹟 I』, 順天大學校博物館·麗水市.
- 崔仁善·曹根佑, 1998, 『麗水 美坪洞 죽림 支石墓』, 順天大學校博物館·麗水市.

- 崔鍾圭, 1995, 『三韓考古學研究』, 서경문화사.
- _____, 2004, 「梨琴洞遺跡からみた松菊里文化の一断面」, 『福岡大學考古學論集』.
- 추연식, 2001, 「認知考古學을 향하여?: '埋葬과 儀禮에 관한 새로운 試圖' 에 대한 논평」, 『한국 청동기시대 연구의 새로운 성과와 과제』 (충남대학교박물관 학술회의자료집):183-188)
- 하승철, 2008, 「진동유적을 통해 본 남해안지역의 네트워크」, 『무덤연구의 새로운 시각』 (第51回 全國歷史學大會 考古學部 發表資料集), 한국고고학회:17-39.
- 河眞鎬, 2008, 『大邱地域 青銅器時代 聚落研究』, 慶北大學校 文學碩士學位論文.
- _____, 2009, 「다. 遺蹟의 綜合的 檢討」, 『大邱 大泉洞 511-2番地遺蹟 II』 (하진호, 허정화, 권현운), 영남문화재단연구원:132-134.
- 河眞鎬·許正和·權憲胤, 2009a, 『大邱 大泉洞 511-2番地遺蹟 I』, 嶺南文化財研究院.
- 河眞鎬·許正和·權憲胤, 2009b, 『大邱 大泉洞 511-2番地遺蹟 II』, 嶺南文化財研究院.
- 한송이, 2010, 「남해안지역 묘역식 지식묘에 대한 일고찰」, 『慶南研究』 3,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6-59.
- 黃昌漢, 2010, 「蔚山地域 青銅器時代 墓制의 특징」, 『青銅器時代의 蔚山 太和江文化』, 蔚山文化財研究院:165-190.
- 江原文化財研究所·原州地方國土管理廳, 2008, 『천전리 A지역』 (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 80冊).
- 慶南考古學研究所, 2003, 『泗川 梨琴洞 遺蹟』.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 2009a, 『金海 栗下里遺蹟 II』.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마산시, 2009b, 『마산 진북 망곡리유적 II』.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1, 『山淸 下村里遺蹟- III지구-』.
- 경북대학교박물관, 1992, 「대구 상인동 선사유적 발굴조사」, 『영남고고학』 제10호:134.
- 경상북도문화재단연구원, 2010, 『달성 평촌리·예현리 유적-본문-』.
- 啓明大學校博物館, 1989, 『臨河댐水沒地域 文化遺蹟 發掘調查報告書(III)』, 安東郡·安東大學博物館·啓明大學校博物館.
- 國立慶州博物館, 1985, 「월성군·영일군 지표조사보고」,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17책, 국립중앙박물관:103-157.
- 국립광주박물관·전라남도·여천시, 1992, 『여천 월내동 고인돌』.
- 國立光州博物館·寶城郡, 2001, 『寶城 東村里遺蹟』 (지도위원회자료).
- 국립대구박물관, 2001, 『대구 오천년』, 통천문화사.
- 國立中央博物館, 1979, 『松菊里 I -본문-』 (國立博物館 古蹟調查報告 第11冊).

-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慶尙南道, 2003, 『晉州 大坪里 玉房8地區 先史遺蹟』.
- 大東文化財研究院, 2008, 『大邱 上仁洞 98-1遺蹟』(大東文化財研究院 學術調查報告 第3輯).
- 東北亞支石墓研究所, 2010, 「여수 GS칼텍스공장확장예정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 釜山大學校博物館, 1987, 『陝川 苧浦里E地區遺蹟』(釜山大學校博物館遺蹟調查報告 第11輯).
- 삼한매장문화재연구원, 2009, 「대구 중구 삼덕2가 188-1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복지후생동 증
축부지내 유적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집」.
- 嶺南文化財研究院·韓國高速鐵道建設公團, 2001, 『漆谷 福星里支石墓群』.
- 우리문화재연구원, 2009, 「산청 매촌리 유적」(우리문화재연구원 지도위원회 및 현장설명회 자료집).
- 충남대학교박물관, 2007, 『호서지역의 청동기문화』(호서지역 문화재조사연구기관 연합전)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9, 「대구 신서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 B구역 문화유적 1차발굴조사-I구역 지
도위원회자료-」(2009.9.22).
- 湖南文化財研究院·高敞郡, 2001, 『사적 제 391호 高敞 고인돌 遺蹟地表面調查報告』.
- 平郡達哉, 2004, 『全南地域 支石墓 社會 展開過程에 대한 一考察』
- 武末純一, 2002, 「遼寧式銅劍과 國의 形成 - 積良洞遺蹟과 松菊里遺蹟을 中心으로」, 『清溪史學』 16
· 17合輯:27-39.

Mong-Lyong Choi, 1984, *A Study of the Yöngsan River Vally Culture- The Rise of Chieftdom Society and State in Ancient Korea-*, Dong Söng Sa.

- R. D. Drennan and D. W. Quattrin, 1995, ' Social inequality and agricultural resources in the Valle de la Plata, Colombia', In (eds) T. D. Price and G. M. Feinman, *Foundations of Social Inequality*, Prenum Press, New York:207-233.
- G. Feiman, 1995, ' The emergence of inequality: A focus on strategies and processes', In (eds.) T.D. Price and G. M. Feinman, *Foundations of Social Inequality*, Prenum Press, New York:255-279.
- G. Feinman and J. Neitzel, 1984, 'Too many types: An overview of sedentary prestate societies in the Americas', In (ed.) M.B. Schiffer *Advances in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Vol.7:39-102.
- A. Gilman, 1995, 'Prehistoric European chiefdoms- Rethinking "Germanic" societies', In (eds.) T.D. Price and G. M. Feinman, *Foundations of Social Inequality*, Prenum Press, New York:235-251.
- C. Peebles and S. M. Kus, 1977, 'Some archaeological correlates of ranked societies', *American Antiquity* Vol.42 No. 3: 421-448.
- S. Plog, 1995, 'Equality and hierarchy: Holistic approaches to understanding social dynamics in the Pueblo Southwest', In (eds.) T.D. Price and G. M. *Feinman, Foundations of Social Inequality*, Prenum Press, New York:189-206.
- T. D. Price, 1995, 'Social inequality at the origins of agriculture', In (eds.) T.D. Price and G. M. Feinman, *Foundations of Social Inequality*, Prenum Press, New York:129-151.



그림 1. 사천 이금동 주변지역 지석묘군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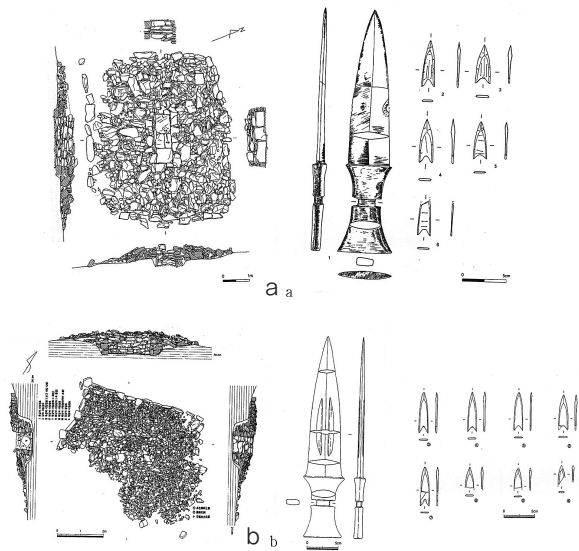


그림 2. 청동기시대 전기의 묘제(1). a. 진안 안자동 1호지석묘, b. 안자동 9호지석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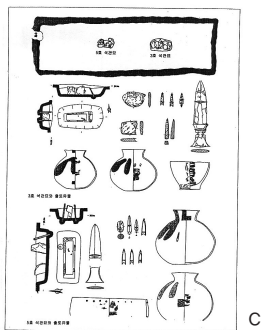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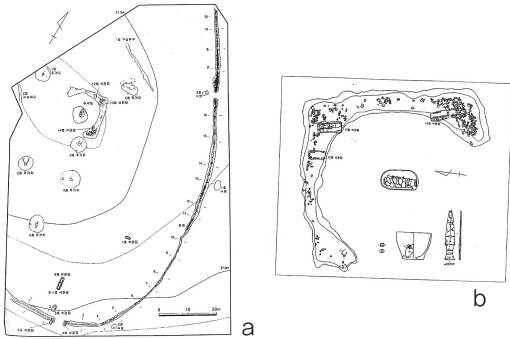


그림 3. 청동기시대 전기의 묘제(2) - 주구석관묘. a. 마산 진북 망곡유적 1호 주구석관묘, b. 마산 진북 망곡유적 1호 주구석관묘 세부, c. 진주 대평 옥방 8지구 유적 3호·5호 주구석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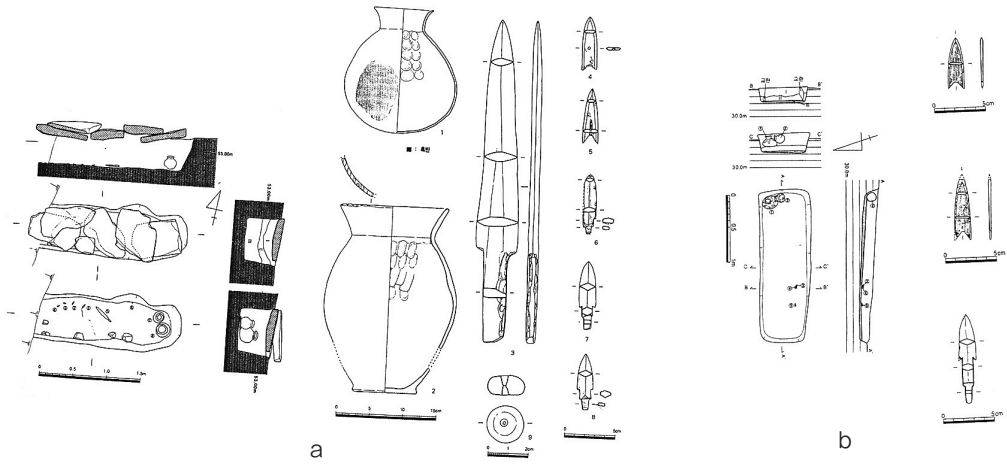


그림 4. 청동기시대 전기의 묘제(3) a. 사천 이금동 51호 석개토팡묘, b. 진주 이곡동 29호 토팡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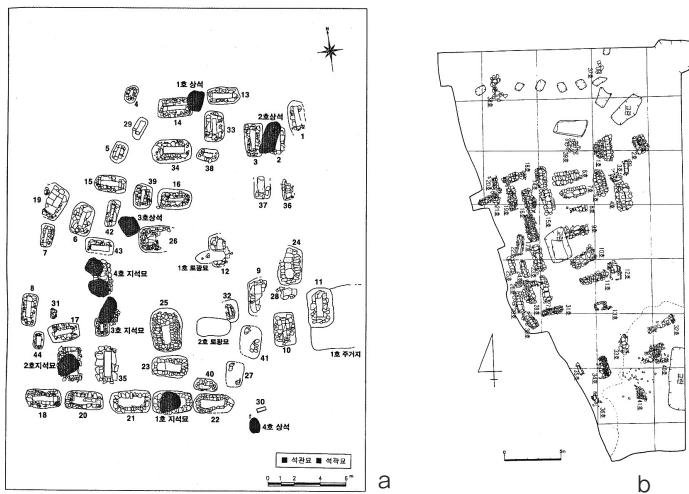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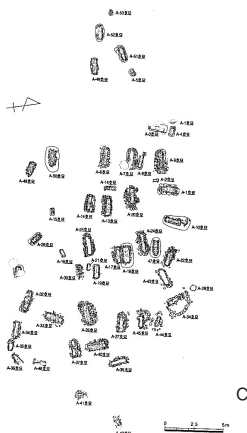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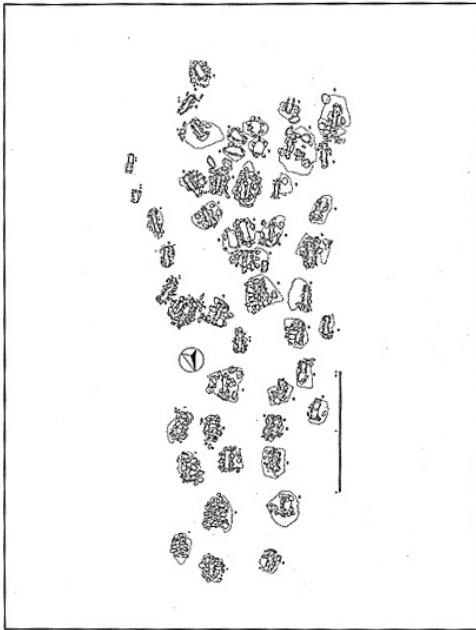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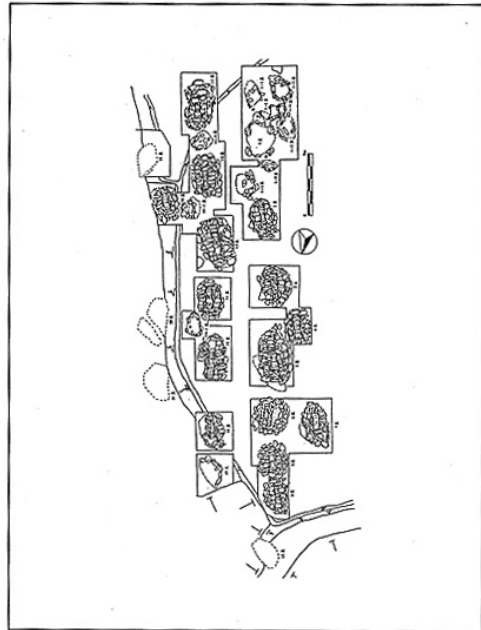


그림 5. 지석묘의 군집 및 배치 양상(1) a. 대구 신서혁신도시 개발사업B구역 지석묘, b. 대구 상동 지석묘, c. 대구 대천동 지석묘 A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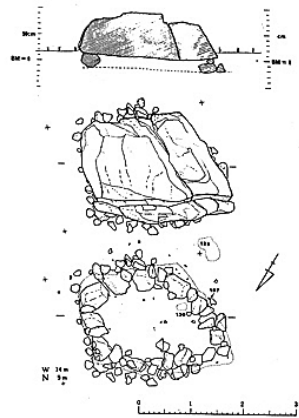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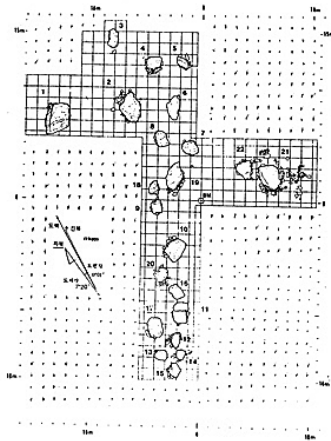




a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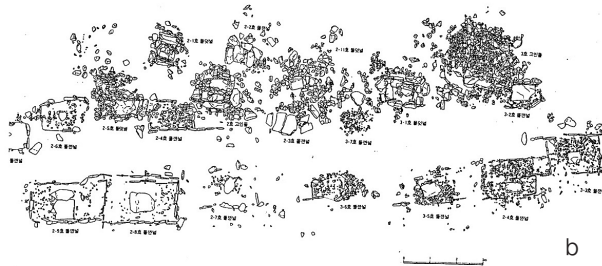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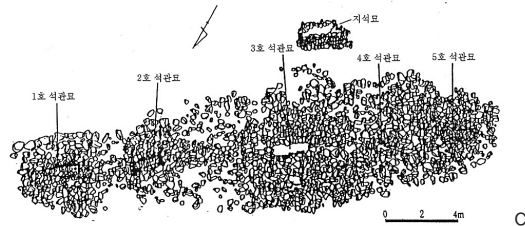
그림 6. 지석묘의 군집 및 배치 양상(2) a. 순천 우산리 내우 지석묘, b. 보성 죽산리 다군 지석묘, c. 안동 지례리 지석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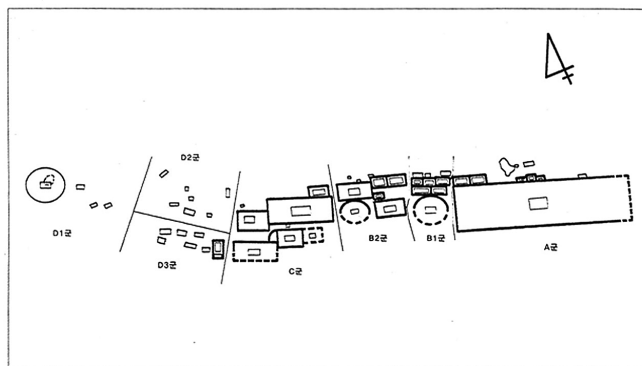
a



b



c



d

그림 7. 지석묘의 군집 및 배치 양상(3) a. 진안 여의곡 A-1지구 무덤, b. 보령 평라리 지석묘, c. 대구 상인동 지석묘, d. 사천 이금동 지석묘 배치 양상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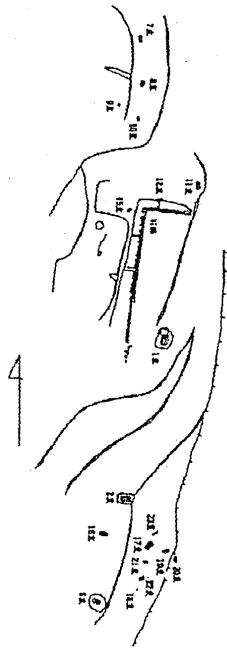


그림 8. 지석묘의 군집 및 배치 양상(4) - 창원 덕천리 지석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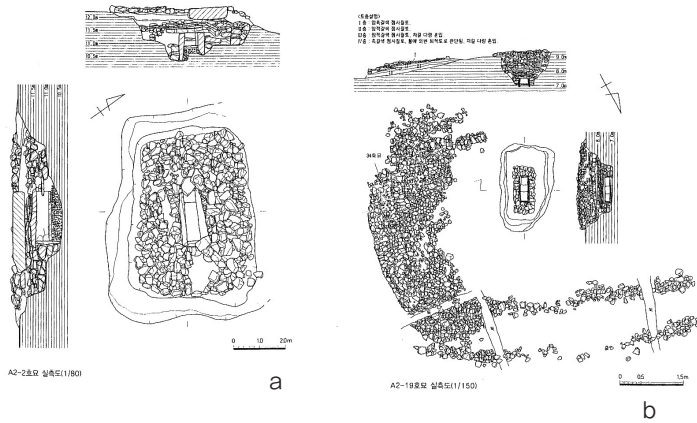


그림 9. 다단토광 하부구조 지석묘
a. 김해 울하리 A2-2호묘,
b. 김해 울하리 A2-19호묘,
c. 보성 동촌리 유적 유구배치도(상)/동촌리 2호지석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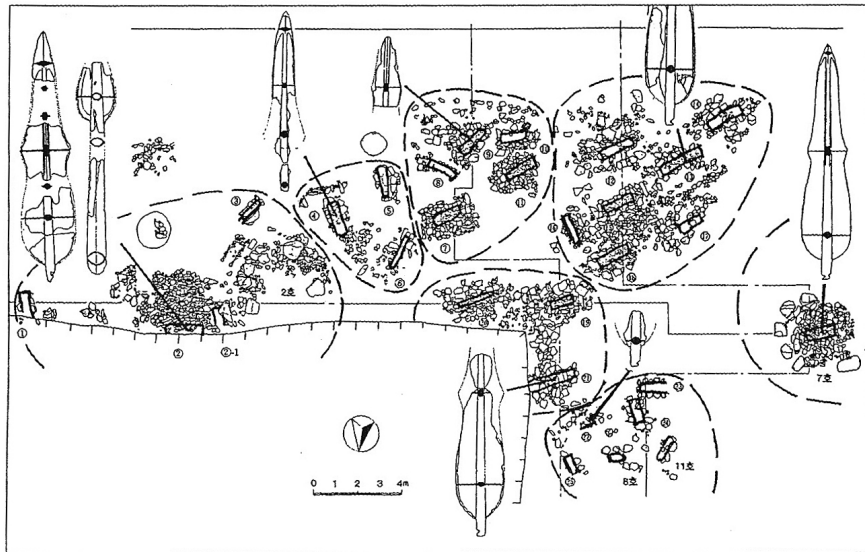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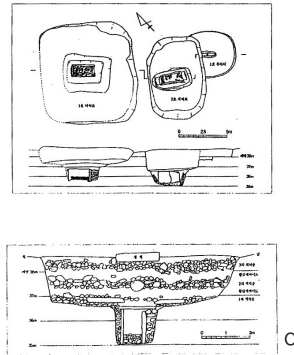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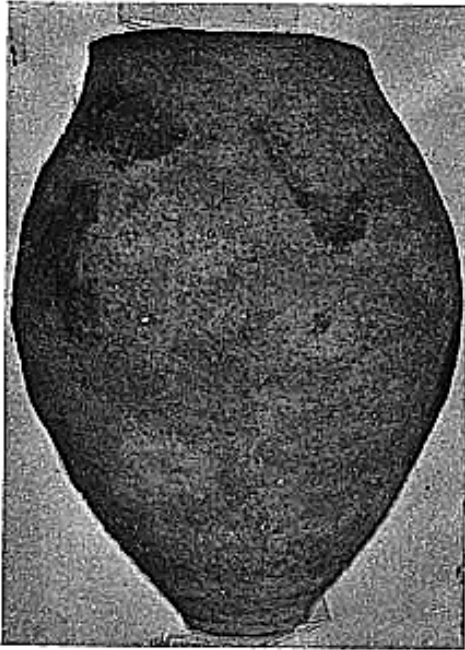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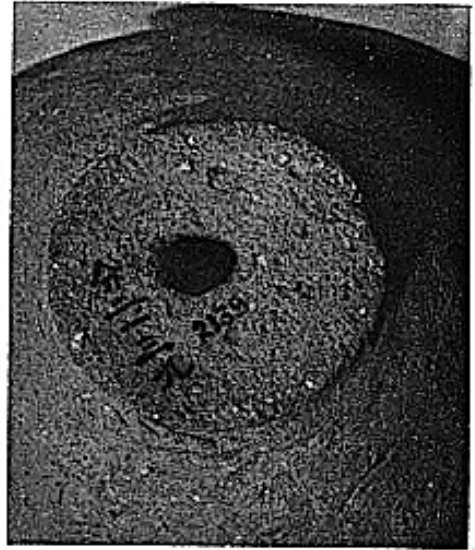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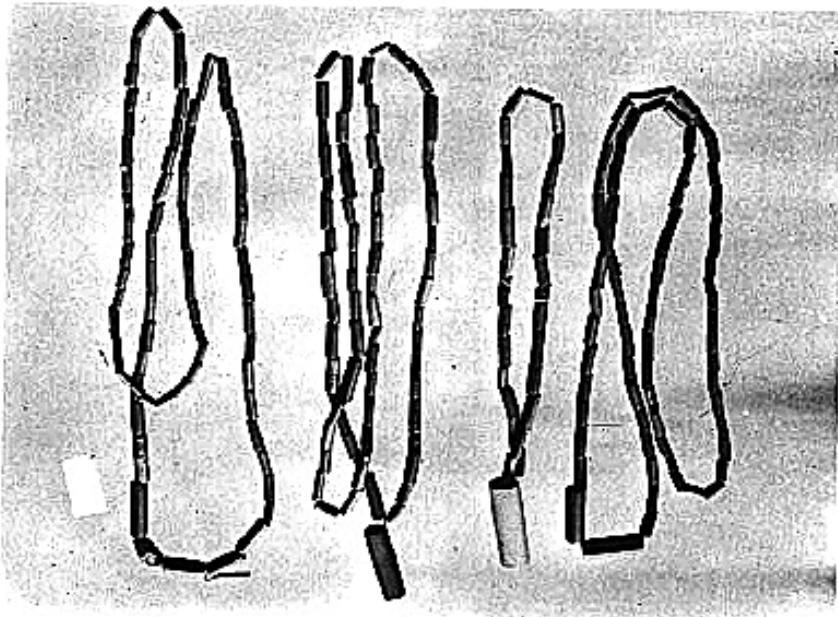
그림 10. 여수 적량동 상적 지석묘 유적 비파형동검 출토 양상(武末純- 2002:31)



a. 관옥이 출토된 부여 송국리 옹관



b. 관옥이 출토된 옹관 저부



c. 부여 송국리 옹관 출토 관옥

사진 1. 부여 송국리 옹관 및 옹관 출토 관옥